연구보고(수시과제)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 간 소통방식에 관한 연구

-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배규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요 약

2008년 5월 한국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국민적 지지 속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67일 후에 이른 바 “촛불집회”가 청소년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이후 106일이나 이어간 촛불집회는 과거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1960년대 초반이나 197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1987년 6월 항쟁이나 1996년 8월 통일운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전개되었다.

촛불집회는 어느 고등학생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초기 참여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촛불집회의 발화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MBC의 PD수첩 방영을 계기로 형성된 청소년들(특히 여학생들)의 불안 심리였다. 시위참여의 매개체는 어떤 조직이나 대자보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였다. 시위에 사용된 도구나 외치는 구호의 형식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촛불집회의 시작과 전개과정은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이었고 충격이었다.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소통방법은 질적으로 달라졌는데, 기성세대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현상은 청소년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사회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연구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인터뷰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카페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우선, 거리에 나온 청소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회에 참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발생하게 될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거리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정부에 대한 불신도 청소년들의 참여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들은 쇠고기수입문제나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정보를 부모나 교사보다 주로 인터넷에서 많이 얻었다. 조사결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와 포털 메인 뉴스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주류언론과 다른 대안적 공론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탈집중적이고 개방적이며 쌍방향적 특성을 갖는 인터넷의 영향으로 민주적 정치공론장이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카페는 광우병에 관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촛불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또한 집회참가자의 경험을 나누는 장이 되기도 했고, 집회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광우병위험을 알리는 게시글의 경우, 절반 이상은 글의 출처가 아예 없거나 뚜렷하지 않았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 글들이 광우병에 관한 지나친 공포와 광우병 전염과정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지식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한 셈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여 왜곡된 정보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세대 간 갈등과 불안의 정도가 커진다.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미래 불안의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기성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새로운 정치참여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많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살다시피 하는 행태에 눈살을 찌푸릴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직 때가 아니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말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화를 많이 가져야 한다.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단순히 부모나 교사의 가치관 및 행위양식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체계적 연구를 하고, 전담 행정조직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성공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청소년들은 장차 한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청소년을 "미래세대일 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면서, 청소년정책을 보호·복지의 틀 속에 가두어 둔다면, 청소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 집단"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속에 응어리진 불만들은 "광우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촉발요인에 의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

목 차

연구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6

제2장 이론적 접근
제1절 청소년의 개념과 사회화 과정 ····· 11
제2절 청소년의 세대특성 ····· 14
제3절 집합행동이론 ····· 19

제3장 2008년 촛불집회 분석
제1절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 29
제2절 참여청소년 심층면접 ····· 36
제3절 웹사이트 내용분석 ····· 46

제4장 분석결과의 함의
제1절 청소년의 중요성 ····· 71
제2절 세대 간 소통의 문제 ····· 73
제3절 청소년정책의 새 방향 ····· 77
제4절 청소년 행정조직 선진화 ····· 8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 89
제2절 정책제언 ····· 93

참고 문헌 ····· 97

부 록

Ⅰ. 카페 내용분석을 위한 Code Book ····· 101
Ⅱ. 촛불집회 참가 청소년 인터뷰 녹취록 ····· 104

표 목차

<표 I-1> 연구영역별 연구방법 ····· 7
<표 Ⅲ-1> 분석대상 카페 개요 ····· 51
<표 Ⅲ-2> 게시글 작성자 수 ····· 53
<표 Ⅲ-3> 게시글의 성격별 비율 ····· 54
<표 Ⅲ-4> 게시글 작성자 간의 상호작용 ····· 55
<표 Ⅲ-5> 쭉빵클럽의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글 ····· 56
<표 Ⅲ-6> 엽기 혹은 진실의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글 ···· 57
<표 Ⅲ-7> 쭉빵클럽의 댓글 수 상위 10개 게시글 ····· 58
<표 Ⅲ-8> 엽기 혹은 진실의 댓글 수 상위 10개 게시글 ···· 58
<표 Ⅲ-9> 게시글의 주제별 비율 ····· 59
<표 Ⅲ-10> 게시글의 월별 주제 변화 ····· 60
<표 Ⅲ-11> 광우병 위험 관련 게시글의 출처별 비율 ····· 62
<표 Ⅲ-12> 미국산 쇠고기수입 관련 게시글의 논조 비율 ·· 62
<표 Ⅲ-13> 쭉빵클럽에서 많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작성자 ····· 65
<표 Ⅲ-14> 엽기 혹은 진실에서 많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작성자 ····· 66
<표 IV-1> 한국의 청소년담당 행정부서 및 주요정책 변천사 ····· 79

그림 목차

<그림 Ⅲ-1> 촛불집회 참여 촉구 게시물 ····· 5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1. 연구목적
2. 연구의 중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1. 연구목적

20세기 후반이후 새로운 문명 전개에 따른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는 인류사회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교통통신의 비약적 발달과 네트워킹의 증가에 따라 생활과 교역의 범위가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일상화로 개인 간 상호작용 양식은 물론 사회적 삶의 양식과 제도까지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변동의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 폭과 범위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세대 간 성장환경이나 개인적 경험도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더욱이 보건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대 차이와 소통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

2008년 5월 한국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국민적 지지 속에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67일 후에, 정권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 이른 바 “촛불집회”가 청소년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지난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인원 98만 명이 참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는 과거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1960년대 초반이나 197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1987년 6월 항쟁이나 1996년 8월 통일운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고 전개되었다.

특히 촛불집회에 많은 중ㆍ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뜨거웠다. 첫 번째 촛불집회 참가자 1만여 명(경찰추산) 중 60% 이상이 여중·고생이었다. 이후 106일에 걸쳐 100회의 촛불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다양한 사회집단이 집회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조직들의 참여가 늘면서, 5월 14일에 처음으로 남성참가자 수가 여성참가자 수보다 많았고, 15일엔 재야시민단체 소속 참가자 수가 일반

시민과 중·고생 수를 추월했다(조선일보, 2008. 12. 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경배 교수는 “학교급식을 통한 광우병 감염 위험성이 (촛불집회 참가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불만이 함께 표출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실제로 100여명의 청소년들은 그 전에 2008년 4월 1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의 학교자율화조치에 반대하는 촛불모임을 열기도 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미래가 긴 청소년들이 광우병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느껴 거리로 나온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학교자율화조치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과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제일 먼저 학교 급식에 쓰일 것”이라는 인터넷 괴담에서 비롯된 불안감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촛불집회의 발화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MBC의 PD수첩 방영(4월 29일)을 계기로 형성된 청소년들의 불안 심리였다. 촛불집회는 한 고등학생에 의해 제안되었고, 초기 참여자들도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시위참여의 매개체도 어떤 조직이나 대자보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였다. 시위에 사용된 도구나 외치는 구호의 형식까지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촛불집회의 시작과 전개과정은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사건’이었고 충격이었다.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소통방법은 질적으로 달라졌는데, 기성세대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현상은 청소년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사회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된다.[1)]

청소년들이 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면 세대 간 갈등과 불안의 정도가 커진다. 그러므로 이번 촛불집회를 통하여 나타난 청소년들의 미래

1)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첫 시위가 열린 5월 2일부터 100번째 시위가 열린 8월 15일까지 촛불시위는 직접피해 1조 574억 원, 간접피해 2조 6939억 원을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2008년 9월 25일).

불안의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며 기성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번 촛불집회의 원인이 된 청소년들의 불안 심리와 청소년들의 소통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대 청소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세대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심층면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왜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를 분석하고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인터넷카페의 내용분석을 통해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지를 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이번 촛불집회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2. 연구의 중요성

정보화·글로벌화·고령화 등의 사회추세에 따라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은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미래전략의 핵심을 청소년정책에 두고 있지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인적자원 계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진로와 직업 선택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사회적 불확실성에 따른 청소년의 갈등과 좌절이 심각하다.

물질적으로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에 따른 새로운 문화 환경이 급속히 형성되면서 청소년이 국가 정보화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세대로 부상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문화기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지원은 너무나 미흡하다. 한국이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감성과 다양성을 문화적 역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새로운 정보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정보사회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사회인식을 제고하고, 국가미래발전을 위한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 청소년관련 행정부서의 개편방향을 시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크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의 청소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5~6월에 걸쳐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를 만들어 낸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과 일반적인 심리상태를 고찰하며, 아울러 청소년들의 세대특성을 살펴보고,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그리고 글로벌·디지털 사회에서 청소년의 중요성 등을 분석한다.

먼저 촛불집회의 전개과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집합행동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배경과 동기 및 생각과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에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끝으로, 한국의 선진국 진입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행정을 선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아래 표에 요약한 바와 같이, 문헌연구, 참여관찰, 심층면접, 내용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했다. 우선, 청소년의 사회화과정과 세대특성, 집합행동이론은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했다. 촛불집회현장과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촛불집회가 고조됐던 5월부터 7월 초까지 촛불집회 현장을 누비면서 집회과정을 관찰했고,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또한 많은 청소년 팬을 가지고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두 인터넷카페를 대상으로, 이번 쇠고기수입파동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사이버커뮤니티를 통해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관심사를 나누는지 분석했다.

<표 I-1> 연구영역별 연구방법

연구영역	연구방법
청소년의 사회화과정과 집합행동에 관한 이론적 접근	문헌연구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	문헌연구
촛불집회 시위현장 연구	참여관찰
촛불집회 참가 청소년 연구	심층면접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웹사이트 연구	내용분석

제 2 장 이론적 접근

제1절 청소년의 개념과 사회화 과정
제2절 청소년의 세대특성
제3절 집합행동이론

제2장 이론적 접근

제1절 청소년의 개념과 사회화 과정[2)]

1. 청소년의 개념

모든 동·식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인간도 아주 작은 생명체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해 가며,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는 점차 노화하며, 결국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성장과 쇠퇴라는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흔히 사람의 일생을 유아기, 유년기, 아동기, 소년(녀)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소년기와 청년기의 사람들을 통틀어 부르는 개념이다.

청소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또는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편의에 따라 청소년의 범주를 연령으로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개 청소년은 중학교에서 대학 졸업 시기까지의 연령대로 규정된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엄밀히 어느 연령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또는 각국의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비교적 앞섰던 미국에서는 1935년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법령으로 청소년 연령을 16~24세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1956년 이래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청소년 인구를 0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영유아기, 학령기, 사춘기, 청년기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본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는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그 대상을 9~23세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청소년은 청년(青年)과 소년(少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소년은 10여세에서 15~16세에 이르는 사람을 말하며, 청년은 주로 15~16세에서 44

2) 제1절과 제2절은 배규한이 집필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제1장의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음.

세(과거에는 3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청소년이란 넓게 보면 대략 10여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연령대의 사람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쉘(Shell) 청소년 연구는 13세부터 25세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94년 법안에서 청소년을 16~24세로 규정하였으나, 2005년 법안에서는 13~25세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15~25세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은 1985년을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청소년을 15세부터 25세까지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나라마다 청소년의 연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청소년은 한가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 의미로 쓰인다. 10대, 청소년, 미성년, 신세대, 젊은이 등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청소년기를 경험하는 연령층 집단의 이미지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의 수많은 법규들 또한 청소년 연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아동 관련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안에 따라 13세, 14세, 15세, 16세, 18세, 20세 등으로 다양하게 보호기준을 두고 있으며, 형법의 경우에도 12세, 14세, 16세, 18세 등 다양한 연령제한을 두고 있다. 공연법이나 공중위생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며, 일반적으로 성년식도 20세에 가진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19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한다.

요컨대,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복합적이다. 한국은 1987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에서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로 규정하였고, 이 기준은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9~24세의 연령층을 청소년으로 본다.

2. 청소년의 사회화

사회변화의 속도나 범위, 폭과 깊이는 사회마다 또는 시대에 따라 다르다. 유난히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며 그 폭과 깊이가 큰 시대를 문명사적 전환기 또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라고 한다.

인류역사상 첫 번째 문명사적 전환기는 B. C. 10세기경이었다. 이 시기에 인간은 상당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육체적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밭 갈기, 파종, 관개, 시비(施肥) 등 새로운 농경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농경사회'의 시작이었다.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문명사적 전환기는 18세기 중엽 산업혁명의 시기였다. 인류는 방적기·증기기관과 같은 수많은 기계들을 발명했으며, 육체노동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산업기술의 발달은 종전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20세기 후반 이후, 인류는 다시 한 번 문명사적 전환기로 들어섰다.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지적(知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사회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정보기술은 무엇보다 우선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이 가능한 '사이버공간'을[3] 창출해 내었다. 이 공간에는 신이 창조하고 인간이 살아온 '실제 공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으며, 실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을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개인의 생활환경을 바꾸어 놓는다. 특히 사회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이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들의 생활에서 사이버공간이 일상화되면서 대부분 활동이 실시간화 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성이나 연령, 용모, 사회계층 등 이전까지 상호작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던 모든 인습적 신분이 소멸된다. 누구나 익명으로 만나지만, 이러한 익명성이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거나 왜곡시키지는 않으며, 오히려 아무 거리낌 없는 주체

3) 사이버공간(cyber space)이란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창출되고 유지되는 상호작용의 공간"을 말한다.

적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으로 정보의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거나 자신의 공간에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교육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식의 내용을 전수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어 종합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일생을 두고 보면, 과거에는 하나의 분야에서 한 가지 일을 하며 전문적인 경력을 쌓아가는 단선적 삶이 주류였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다중경력을 통하여 교육과 일, 그리고 여가생활을 동시에 해 나가는 복합적 생애과정으로 바뀌고 있다.

청소년 도약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약을 만들어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화 과정을 바꾸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대행자는 가족, 동년배집단, 학교, 지역사회, 매스미디어, 뉴미디어 등이다. 교육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별개로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뉴미디어의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인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청소년 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모습을 바꾸며, 뉴미디어의 기능을 재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제2절 청소년의 세대특성

1.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의식을 형성하고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또한 이성을 그리워하거나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급격한 지적(知的) 발달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인생의 다른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겪는다. 청소년기에는 키가 쑥쑥 자라며, 가슴둘레나 체중도 급격히 늘어난다. 동시에 신체적 특성이나 기능상 남·여간 차이가 뚜렷해지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성에 눈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남아는 남자답게, 여아는 여자답게 성숙하기 시작하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커진다. 이러한 사춘기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년 정도 먼저 경험하게 된다.

둘째, 개별적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기에는 대개 심리적 혼란과 정서적 불안정을 겪는다. 이것은 자신의 신체적, 성적(性的) 변화에 대해 심리적으로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당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변덕스러운 감정변화로 공연히 신경질을 부리거나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피에 빠지거나 고독감을 느끼기도 한다.

셋째, 청소년은 지적 호기심에 눈뜨기 시작하여 자신의 정신세계를 형성해 나간다. 수학, 과학 등 지적 문제해결 능력은 대개 청소년기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며, 이 때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정서적 발달과 지적 호기심의 증대로 음악, 미술, 문학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선·악에 대한 가치관과 예술적 심미안을 갖게 된다.

넷째, 정신적으로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기정체성(self identity)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대개 다른 사람이나 외계 사물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 눈뜨게 되며,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여 특정 논리나 이념에 쉽게 감동하며 극단적 선택이나 반항적 행동에 빠져들기 쉽다.

다섯째, 청소년기에 이르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다. 청소년은 자의식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른 독자적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 부모뿐 아니라 교사나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하며,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따른 선택적 친구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여섯째, 청소년기를 통하여 성인기 진입을 위한 이행이 시작된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그 동안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하며, 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 이러한 이행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은 부모의 집을 떠나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요컨대, 청소년기는 인생의 다른 시기와 확연히 구분되며,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다른 시기의 인성(人性)과 분명히 다른 특징을 지닌다. 청소년기는 결코 기성세대를 따르기 위한 준비기간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소중한 삶의 한 부분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청소년' 하면 으레 '문제'라는 단어부터 떠올린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아직 미숙하고 덜 성숙한 임시적 존재이며, 자라면서 점차 성인의 모습을 닮아 가야 한다."고 오해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대개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는 데서 쾌감을 느끼므로 문제행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크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항상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대개는 청소년들의 행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기준으로 이와 다른 것은 무조건 일탈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과 경험은 기성세대와 다르고 시대도 획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제 기성세대의 틀에 맞추어 청소년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실 청소년은 과거의 기성세대와 다를 뿐 아니라 살아갈 미래도 다르다.

2.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

급격한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성장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21세기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우선 가치관의 변화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경제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시했던 데 비해, 최근 청소년들은 오히려 문화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의식에서도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비물질적 생태환경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뉴미디어의 보급과 더불어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했을 뿐 아니라, 집단이나 공동체 보다는 개체를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에 흔히 강조되던 공동체의식이 약화된 반면, 개인 간의 관계(relationship) 의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당연히 행동양식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세기 후반 세계를 지배하던 이념적 지향이 급격히 퇴조하면서, 특정 이념에 몰입되어 맹목적으로 행동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無)이념 또는 혼합이념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위에 복종하고 추종하던 일원적(一元的) 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다원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양식이 보편화되었다.

과거 혈연, 지연, 학연 등 갖가지 연고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던 양식도 크게 약화되었다. 연고나 지역 공동체의 영향력이 사라진 자리에는 관심과 취향에 따라 형성되는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행위의 준거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라는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시민적 행위도 전 지구적 차원 또는 인권적 차원의 행위로 대체되어 간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가 과거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아주 못마땅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장하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성세대가 과거의 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비해, 청소년들은 이미 미래의 공기를 호흡하며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구조는 과거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며,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도 산업 세대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기성세대가

살아 온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에게는 못마땅해 보일지 모르는 이러한 청소년의 모습이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3. 청소년의 세대적 특성

흔히 청소년세대는 N세대로 불리고 있다. 미국의 사회학자 탭스콧(Tapscott)은 컴퓨터와 친숙한 젊은 층을 일컬어 'Net Generation'(N 세대)이라 불렀다. 그에 따르면, N 세대는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사이버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다(차현희, 2007서 재인용). 또한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한 '접속'을 중요시하는 네트워크 세대이기도 하다(이수범, 2004). 따라서 N 세대에게는 현실세계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청소년들은 또한 R세대로 불리기도 한다. 김종길 · 김문조(2006: 222)에 따르면, R세대는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화 돼 있으며, 집단적인 공동체의식과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는 집단"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성세대가 통제와 자율,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R세대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 사이의 조화가능성을 타진하고 직접 구현하고자 하는 '패러독스 세대'이다.

최원기(2006)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신세대의 특징으로 다양성, 물질주의적 가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재, 사이버문화 등을 들고 있다. 신세대는 비교적 풍요로운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독특한 소비문화를 창조하기도 한다(이수범, 2004). 즉, 그들은 고가의 브랜드를 선호하며, 좋아하는 모델이 출연한 광고의 제품을 사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서로의 옷과 물건들을 빌려주고 빌리는 방식으로 패션코드를 공유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유행을 잘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물질주의적 성향도 강하다. 그들은 광고에 민감하고 광고에 관한 호감도 높다. 특히 광고는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제품구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촛불집회의 확산으로 2.0 세대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가령, 김호기(2008)는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보였던 지금의 10대들을 '2.0 세대'로 규정하면서 그들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웹 2.0'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아와 사회의식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 세대'의 특징으로 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 공동체 지향, ②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는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 ③ 자아실현을 소중히 하는 '탈(脫)물질주의 가치' 세대, ④ 부모인 '386 세대'로부터 사회비판의식을 학습한 '격세유전'적 특징을 지닌 세대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민경배(2008) 또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고 촛불이 상징하는 새로운 감수성을 체득한 386 주니어들의 거침없는 반란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386 부모세대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는 386 주니어들의 특징으로 다른 어떤 세대보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한다는 점과 폭넓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한 요즘의 청소년들은 성인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다.

제3절 집합행동이론

1. 집합행동과 사회운동

집합행동(collective behavior)이란 "일상적인 규범에 따르지 않는 다수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집합행동이란 개별적 차원의 일탈행위가 집단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개 제도적으로 확립된 질서 밖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집합행동은 대개 일시적, 자발적, 감정적, 비합리적, 비조직적이며, 불안정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비해 사회운동(social movement)은 어떤 특정의 사회변화를 달성하려는 다수의 의도적, 조

직적, 지속적, 집합적 노력을 말한다. 대부분 집합행동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만, 때로는 긴 생명력을 갖고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장기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사회학에서 집합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조기능주의자들은 체계의 구성요소 즉 규범이나 가치·제도 등의 불일치나 괴리 등으로 인한 구조적 긴장 때문에 집합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임희섭, 2007: 35~37). 집합행동에 관한 대표적 사회학자인 스멜서(Neil Smelser)는 집합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가치부가이론(value-added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가 제시하는 여섯 가지 집합행동의 단계 또는 결정요인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구조적 유인성이다. 무엇보다 먼저 사회체계가 집합행동을 허용하는 정도 또는 집합행동이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흑인폭동은 흑인밀접 지역이 형성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다.

둘째,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가치관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긴장이 발생하면 집합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구성원들에게 일반화된 신념의 형성·확산이다. 현재의 상황이 옳지 못하므로 사회문화적 환경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신념이 형성·확산되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집합행동의 발생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넷째는 촉발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기 3가지 요인은 집합행동의 선행조건들이며,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하여 바로 집합행동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집합행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촉발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집합행동에 참여하도록 동원하는 과정이다. 대중 설득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리더가 등장하거나 다수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사회통제의 성격이다. 위와 같은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통제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대규모 집합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진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제기제가 약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집합행동이 확산되고 나아가 사회운동 차원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요컨대, 스멜서의 가치부가이론에 따르면, 집합행동이란 "다수 구성원들이 구조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화된 신념에 따라 그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재구성하려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집합행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단계씩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집합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제품생산의 경우 각 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가치가 부가되는 것처럼, 집합행동도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것이다.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고전적 이론들은 흔히 집단적 정체성 또는 신념의 공유를 강조하는 사회구조론과 개인차원의 기회비용과 이득 사이의 합리적 타산을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론으로 대별되어 왔다. 그러나 장우영(2006)은 이러한 이론들은 중범위적 수준에서 사회운동이 발생하고 정치동원이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기존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자원동원론이다. 1970년대 들어 평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신사회운동론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확산되면서 미국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동원이론이 체계화 되었다(임희섭, 2007).

자원동원이론의 기본적인 전제를 보면, 사회운동의 발생과 전개과정은 자원동원 가능성 여부와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운동참여자들이 운동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동원하느냐에 따라 사회운동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본다. 여기서 자원은 집단의 연대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차원의 집합적 요인들, 예컨대 운동조직, 커뮤니케이션수단, 이념, 리더십 등을 포괄한다(장우영, 2006).

맥아담은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임희섭, 2007: 96). 첫째는 정치적 기회구조인데, 이는 도전자 집단의 정치

적 목표에 대한 성원집단의 지원 또는 반대의 분포를 일컫는다. 둘째는 정권의 위기로서, 이러한 체제위기는 도전자 집단에게 유리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운동반대자들의 억압적 사회통제 부재 또는 약화로서, 이 역시 도전자 집단의 정치적 기회를 강화하는 요소다. 넷째는 갑작스런 고통과 불만 등 집합행동을 촉발하는 요소다.

이러한 거시구조적 요인 뿐 아니라 기존의 제도가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참여를 위한 운동주체들의 인식적 해방이 이뤄져야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네트워크와 뉴미디어 같은 기술적 도구들이 사회운동을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운동이론가들은 사회운동 일반이론으로서의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이론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구성주의이론을 주장하기도 한다(임희섭, 2007: 163). 이들은 사회운동이 객관적인 구조적 긴장이나 개인적 또는 사회심리적 불만에 의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다수의 개인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기존의 인식 틀을 재구성하고, 나아가 현재의 조건들에 대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행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인식의 틀을 공유하게 됐을 때 비로소 사회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합행동의 틀은 인지적, 상징적, 문화적인 요소들(신념, 가치, 규범 등)과 사회심리적 요소들(의식, 감정, 정체성, 연대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2. 인터넷과 사회운동

근래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사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이 사회운동조직이나 집단의 주장과 요구를 공론화시키는 공공적이고 참여적인 매체로 등장하면서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집단적 정체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운동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김용철, 2008). 즉 인터넷은 사회운동 주체들에게 운동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운동집단과 지지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또한 집단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은 운동집단의 내부 응집력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인터넷은 그동안 주변적 지위에 머물렀던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공론화 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 포드와 길(Ford & Gil, 2001)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은 제도권 언론이 담지 못했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대안매체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인터넷은 사이버공간에서 누구나 기자이자 편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Moore, 1999). 이처럼 인터넷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의 참여와 역량강화(empowerment)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재철(2006)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을 ① 저비용 고효율, ②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반영, ③ 주류매체가 소홀히 다루는 쟁점이나 주제 전달, ④ 집합적 행동의 용이함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이나 계층에 기반을 둔 집단적 조직이었으나, 정보화시대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혹은 개별단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윤성이, 2005; 장우영, 2006). 이전 산업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선거나 정당 등에 국한됐던 반면,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다. 즉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표출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사회의 여론을 형성·강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경재(2005)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참여를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참여와 구분해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라 규정한다. 즉 패러디물의 범람, 항의메일, 리플달기, 글 나르기, 사이버촛불시위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이버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정치참여로 보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는 시민사회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촉진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운동인 사이버액티비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장우영(2006)은 사이버액티비즘이 다양한 정치참여 방식을 제공하고 네티즌들의 집합적 정체성 및 정치적 효능

감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김용철(2008)은 온라인 사회운동을 오프라인중심 조직운동, 온라인중심 조직운동, 오프라인중심 네트워크 운동, 온라인중심 네트워크 운동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프라인중심 조직운동은 확고한 조직적 체계와 기반을 갖고 있는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에서 발견되고, 온라인중심 조직운동은 사회운동을 이끌어가는 위계조직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활동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오프라인중심 네트워크운동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수직적 위계조직이 아닌 개별 행위자들의 수평적 네트워크이며,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운동이 이루어진다. 그는 스마트 몹(smart mob)과 플래쉬 몹(flash mob)이[4]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중심 네트워크운동은 분산된 개인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화에 따르면, 2008년 촛불집회는 온라인중심의 네트워크운동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 뉴미디어를 활용한 운동사례

2000년 이후 인터넷이 중요한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운동의 영역자체를 확장시켰고, 운동방식이나 조직형태도 급격히 변화시켰다(홍일표, 2005).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상업적 오락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저널리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자유롭게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치참여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윤영철, 2000).

4) 플래쉬 몹은 이번 촛불집회에서도 사회운동방식 중 하나로 등장했다. 가령, 인터넷 카페‘ 소울드레서’ 회원들은 서울 강남 코엑스몰 메가박스 앞에서 미국산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펼치기도 했다(구본권, 2008). 카페 회원들은 행인들 사이에 있다가 진행자들이 ‘민주주의가 멈췄읍니다’라는 손 팻말을 들어 올리면 잠시 동작을 멈추는 ‘플래시 몹’을 선보였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서명운동이나 캠페인, 사이버시위, 배너달기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독자적 운동방식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2000년 청소년들의 'No Cut'운동[5], 2002년 미 장갑차 사고로 숨진 여중생 추모 집회, 2002년 노사모의[6] 활약,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반대 촛불집회 등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새로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줬다. 총선시민연대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자관련 정보 공개, 온라인 서명운동, 후원자모집, 온라인정치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민주주의 실험을 시도했다(윤영철, 2000).

특히 인터넷게시판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 속에 기존의 정치권력이나 제도권 언론의 담론에 맞서는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기능했다. 송경재(2005)가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정국 동안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탄핵반대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만드는 등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했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수백여건의 글이 올라왔고 이중 상당수 토론 글은 대통령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한 닉스사의 도메인 선정 조작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안티닉스운동은 운동 전반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의 다양한 운동 전략이 사이트방문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정재철, 2006).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인터넷을 통한 시민운동은 매우 일상화되고 있다. 조대엽(2008)은 2000년 이후 한국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한 요소로서 무엇보다도 온라인공론장과 이를 매개로 작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꼽았다. 즉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정보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전자적 대중'이 통신기술과 뉴미디어로 네트워크화 돼 온라인 공론장을 주도하는 공중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

5) 이른바 '학교붕괴' 현상이 절정에 이르렀던 2000년 여름,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두발규제에 맞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두발자유화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두발제한 반대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조직은 '채널 10'(www.ch10.com), '아이두'(www.idoo.net), '사이버유스'
(www.cyberyouth.org)와 같은 청소년 웹진이었다(김영지, 2000).

6)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등장은 한국 인터넷문화의 독특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카페문화가 정치적 위력을 발휘한 사례로서, 인터넷 상에서 정치적 소통과 동원,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여준 사례이다(홍일표, 2005).

전자적 공중은 이처럼 시민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민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재철(2006)은 개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는 개인차원의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전개가 가장 큰 변화라고 주장한다. 즉 개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기하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온라인 시민운동의 형태가 한국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운동 전략은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미 구획돼 있는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는 탈 경계 연대로 특징지어지며, 오프라인과의 네트워킹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장우영, 2006).

제 3 장 2008년 촛불집회 분석

제1절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제2절 참여청소년 심층면접
제3절 웹사이트 내용분석

제3장 2008년 촛불집회 분석

제1절 촛불집회의 전개과정

"잃어버린 10년"이란 유행어를 낳은 지난 해 대선과정을 거쳐 2008년 2월 25일에 이명박 정부가 희망찬 출범을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67일 후에 시작된 이른 바 "촛불집회"가 106일간이나 이어지면서, 한국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세계인들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2008년 서울에서 3개월 이상 계속된 것이다. 특별히 정부의 큰 잘못이나 부정부패 같은 사건도 없었는데, 대통령을 비판하며 퇴진하라는 시위가 매일 밤 일어난 것이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취약한 사회통합의 결과물이며, 새로운 시대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대가(代價)이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이제 막 출발한 정부를 이처럼 흔들게 되었던가?

1. 촛불의 발화점

2008년 4월 6일 '안단테'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아고라'에 '이명박 탄핵' 온라인 서명운동을 발의했다. 그는 다음 카페 '안티 이명박'의 회원으로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고 한다. 1천만 명을 목표로 개설된 이 서명장에는 4월 29일까지 10만 명 정도가 동참하여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온라인에서 협상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카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4월 29일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는 MBC PD수첩의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PD수첩 이전에는 괴담(怪談) 수준이었던 광우병 공포가 이 방송을 계기로 현실적 힘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다. 'PD수첩' 방영을 계기로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서명에 참여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4월 3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과[7]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금지 특별법 청원'을 개설되었으며, 이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청원'이 개설되고 이후 '청원'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온라인 운동의 하나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다. 5월 2일 오전까지 서명자는 52만 명을 넘어섰으며, 5월 4일에는 서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은 오프라인 운동으로도 연결됐다. '안티 이명박' 카페는[8] 5월 2일 처음으로 청계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였다. 당초 경찰은 집회 참가자를 300여 명 정도로 예상했으며, 주최 측도 소규모 집회에서나 사용하는 메가폰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예상의 30배를 넘는 1만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통제가 어려워지자 예정보다 1시간이나 앞당겨 저녁 9시에 집회를 서둘러 끝내야만 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5월 2일을 시작으로 개인 커뮤니티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9]의 주최 하에 문화제 형식으로 거의 매일 열렸다. 촛불집회 초기에는 10대들이 핵심 참여 연령층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60% 이상이 여자 중·고등학생들이었다. 그들은 광우병 괴담을 거의 공포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0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재생산하여 동일 연령층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포함으로써 온라인 결집력을 높이고, 휴대폰·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결집력을 확산하였다.

첫날부터 촛불집회의 현장 상황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 웹사이트인 '아프리카'[10]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 됐다. 이후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1인 미디어 방송이 기존 미디어를 제치고 촛불집회의 중심에서 촛불집회 관련 여론

7) 다음 아고라에 개설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은 2008년 12월까지 1,0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했다.
8) '안티 이명박' 카페의 공식 명칭은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이명박탄핵투쟁연대)이다. http://cafe.daum.net/antimb
9)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1,000여개 시민단체들의 공식 연합단체다.
10) http://www.afreeca.com

을 형성하는 대안매체로 급부상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각종 다양한 뉴미디어 기기(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와이브로가 장착된 노트북 등)를 활용하여 집회 현장 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배포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학계에서는 이전 세대에서는 볼 수 없던 10대들의 이러한 사회참여 양상을 '웹 2.0세대' 등과 같은 새로운 세대적 특징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예상치 못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정부 측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근거 없는 괴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청와대 블로그 등을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촛불 문화제의 참여 인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지어 반대와 항의의 댓글을 달려는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이 연이어 임시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5월 13일 경찰은 인터넷 괴담 유포자 혐의로 네티즌 21명에 대해 신원확인을 요청하였고, 네티즌들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항의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11]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불만 표출 방식은 이후 항의댓글 운동으로 진화하여 조·중·동 광고 중단 및 불매운동 등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

집회 기간이 길어질수록 집회 규모도 더욱 커졌으며, 참여 연령층 또한 점차 확대되었다. 5월 15일 경부터 각종 단체 소속의 조직적인 참가자들이 중·고등학생과 일반시민들의 숫자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비폭력 촛불문화제를 개최해 오던 집회참가자들이 5월 24일부터는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광화문 일대 도로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가 발표된 이후 촛불집회는 과격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10일을 전후하여 20·30대가 참여와 진행의 주축이 되었고, 청소년들의 모습은 시위대에서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예비군 부대와 유모차 부대가 등장했고, 깃발부대로

11) 항의댓글 달기 운동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성지순례 운동'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불리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 이때부터 촛불집회는 강한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으며, '촛불'의 의미를 잃고 과격한 양상으로 변질되었다.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여론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특히 7월 4일 열린 불교 시국 법회 이후부터 집회 참가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8월 15일의 100회를 끝으로 촛불집회는 소멸되었다.

촛불집회가 처음 열렸을 때는 집회개최자 자신들도 이처럼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사회에 이렇게 큰 파장을 낳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보다 다른 인접국가로 부터의 식품수입이나 흡연 또는 안전사고 등이 훨씬 더 한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상들에는 그렇게 무감각하면서 유독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만 그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온라인운동을 시작한 것도 10대 청소년이었지만, 초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도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었다. 무엇이 청소년들을 이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했을까? 직접적 촉발의 계기는 물론 MBC 'PD수첩'이 제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이다. 그리고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집단적 공포감(mass hysteria)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영상매체의 힘이고 인터넷의 영향력이었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MBC 'PD수첩'의 그 무서운 광우병 동영상(그 후에 사실은 광우병 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을 보았고, 여기에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큰 일부 연예인들이 가세함으로써 불안정한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한껏 자극한 것이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여고생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광우병이 유행할 걸 생각하면 너무나 무서워요." 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사례 21, 고3 여학생).

광우병공포가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라는 뉴 미디어가 스멜서의 가치부가이론에 따른 첫 번째 조건인 '밀집공간'을 청소년들에게 형성해 주었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은 학교라는 실제공간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 사이버공간 안에서 언제나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수 있

고 상호 감정의 파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밀집된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2. 촛불의 확대과정

실제로는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먹겠다고 하는데, 시위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 자체를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사실과 다른 일이 사실처럼 왜곡되고,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일로 나라가 흔들리게 된 셈이다. 어쨌든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 높은 최첨단 정보통신국가인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다.

어느 한 나라의 사회적 특성이나 국민들의 사회적 성격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 차차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방관하기에는 한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2008년 촛불집회의 전개과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4월 6일 한 고등학생이 사이버 카페에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했다.
② 4월 29일 MBC ‘PD수첩’에서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③ 인터넷을 통해 상기 프로그램이 널리 확산되었다.
④ 비판적 입장의 언론과 단체 및 연예인 등이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⑤ 청소년들의 집단적 공포감(mass hysteria)이 조성되었다.
⑥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처음으로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⑦ 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었고 아날로그적이었다.
⑧ 전교조를 비롯한 이른바 다양한 진보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였다.
⑨ 야당 정치인들이 정치쟁점화 했고, 6월 10일을 전후하여 정치적 집단들이 대거 참여했다.
⑩ 6월 29일 폭력시위 이후 진보적인 종교단체들이 가세했다.

위의 일들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중첩되어 전개되었다. 사건의 대응방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조직이나 현상은 ① 방송의 영향력, ② 인터넷의 소통 속도와 범위, ③ 청소년들의 심리상태, ④ 노조 및 시민단체들의 역할, ⑤ 종교인들의 참여, ⑥ 정부 당국의 신뢰도 등이다.

정치권이 시대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했더라면 촛불집회는 청소년들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촛불이 이처럼 저녁마다 시내 중심가를 마비시킬 정도로 확산된 것은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스멜서의 가치부가이론에 따르면 초기단계에서 소멸될 수도 있었던 촛불집회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은 사회통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권의 고령화로 인해 시대변화와 신세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다. 청계광장의 촛불문화제는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유비쿼터스 시위를 했다. 전경이 어디에 어떻게 진용을 짜고 있는지 문자메시지와 아프리카(동영상중계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면서, 전경이 에워싼 청계광장의 모든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실시간으로 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이었다. 결국 디지털적인 집합행동을 아날로그적인 공권력이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신세대는 조그만 것에 실망하지만 또한 조그만 것에 감동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감동을 원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모습은 도무지 네티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 것이다. 변화된 새로운 사회와 시위문화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디지털 세대와의 소통도 전혀 이루지 못했다. 정부 내에 새로운 청소년 세대를 제대로 인식하는 고위층 인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광우병 공포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한 6월 중순 이후 시위현장에서 면담한 청소년들의 정서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한마디로 “무시당하니 기분 나쁘다.”는 것이었다.

둘째, 청소년들이 MBC PD수첩과 그로 인해 재생산된 인터넷 괴담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던 것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더욱이 성급한 행정조직 개편과정의 혼란, 이른바 '강부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계층적 위화감, 계파이익 챙기기 공천 파동과 '친박 복당' 논란이 야기한 여당 내 갈등, 성급한 대선 공신들의 논공행상 논란 등은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부채질 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된 학교 교육이나 입시 행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도 한 원인(遠因)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집단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청소년들의 폭발적 반응에 바로 호응하여 조직적으로 불길을 확산시키는데 나섰다. 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여러 좌파 시민단체들도 우파 단체들에 비하면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훨씬 나은 편이다. 이번에도 그들은 "뇌송송 구멍탁" "미친소, 너나먹어" "명박산성" 등 10대들의 취향에 맞는 감각적인 언어로 끊임없이 청소년들을 자극했다.

넷째, 촛불집회가 의외로 크게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대통령이 여론수렴에 나섰지만, 타이밍을 놓쳤고 그 대상과 쟁점도 어긋났다. 불안감에 휩싸인 10대 청소년들 대신 주로 원로들을 만났으며, 행동하는 시민들 대신 관전하는 종교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달래는 대신, 촛불집회를 기화로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정파적 이익을 확대하거나 야당의 파이를 키우는데 급급했으며, 정부대응 또한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보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인적쇄신에 치중했다.

다섯째,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이해관계 집단의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개혁정책들을 무더기로 예고만 하고 전격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초래했다. 예컨대, MBC의 민영화 반대와 KBS 정연주 사장의 자리 버티기 등으로 방송계의 이반을 야기했다. 성급한 행정조직 개편과 공무원 대폭감축 및 근무여건 강화, 공기업 대폭 민영화 예고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까지 방관세력으로 돌아섰다. 그 외에도 국책연구기관장 일괄 사표제출과 처리 지연으로 연구기관의 업무 공백을 초래했으

며, 영어심화교육/0교시수업/학력평가 등의 교육정책 예고로 중·고등학생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고, 총선 공천파동에 따른 보수 세력 분열도 민심이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수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한 촉발계기는 분명히 근거 없는 광우병 공포의 확산이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주장이 그처럼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정부부터 첨예한 관심사였던 쇠고기 수입문제를 충분한 홍보나 국민적 설득과정 없이, 그것도 대통령의 방미시기에 맞추어 전격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이다. 결국 협상의 본질적 내용보다는 부득이한 국제정세와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정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결론적으로, 촛불집회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축적된 압력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계기로 분출된 것이다. 물론 일부 방송이나 시민단체 등의 개입이 문제를 확대시킨 측면은 있지만, 그들의 의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그 의도대로 따라갈 만한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제2절 참여청소년 심층면접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계기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게 됐고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 연구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했다.

청소년들이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 5월과 7월 2차례에 걸

쳐 청계천과 시청광장에서 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함께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인터뷰했고, 인터뷰 시간은 각 사례 당 30분 내외였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이들은 남학생 9명, 여학생 15명이었고,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18명이었다. 이와 더불어 문화제 자유발언대에서 나온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문화제를 참관하면서 느낀 점 등도 분석 자료로 사용했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의 틀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게 된 계기, 참여한 후의 느낌, 향후 참여여부 등
②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된 정보획득 및 공유 과정
③ 미국산 쇠고기수입이나 대운하문제 등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
④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⑤ 청소년들의 세대의식 및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건
⑥ 문화제 참여 우려 목소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와 반응 등

연구자들은 이러한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을 던졌고, 가능한 한 인터뷰 대상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쉽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 인터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서 인터뷰가 이뤄지다보니 청소년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의견들을 수집하기가 다소 어려웠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응답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되었다.[12)]

1. 청소년의 촛불문화제 참관

촛불문화제 자유발언대에 등장한 청소년들 발언의 공통점은 먼저 청소년의 의사표현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며, 자신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배후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

12)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부록 II. 인터뷰 녹취록**을 참조. 여기에 실리지 않은 인터뷰 사례들은 이창호(2008)에 잘 정리되어 있다.

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와 청와대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 어조가 매우 직설적이며, 코믹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매우 컸다. 광우병은 급식과 같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생리대, 화장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실제로 믿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혹시 광우병 때문에 일찍 죽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나타냈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출했다. 다음은 자유발언대서 나온 청소년들의 생생한 외침들이다.

>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해 놓고는 미국을 섬기는 정부는 문제 있다. 촛불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좌파, 빨갱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이 문제의 배후는 정부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 스스로가 영어 해석을 잘못 해놓고, 우리에게 영어몰입교육을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학생이라서 논리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말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정치인들보다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한다고 생각한다(5월 14일 10대 여학생 자유발언).

> 6월에 있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여기 나온 심정이 착잡하다. 이명박 정부를 믿었건만 실망스럽다...정부의 영어 몰입 교육은 정부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중요한 협상 자료를 오역한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5월 14일 10대 남학생 자유발언).

>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로또 당첨되고 나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고요? ...로또에 당첨되는 분이 많은 건 그만큼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서 로또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고, 저희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싸니까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면 광우병에 걸리게 될 텐데 그런 확률에 비유하면 안 되죠(5월 15일 10대 여학생 자유발언).

촛불문화제 기간 동안 10대들은 자유발언대를 통해 이번 미국산쇠고기수입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를 솔직하게 표출했다. 청소년들의 자유발언 속에는 쇠고기 수입으로 비롯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현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담겨져 있었다.

촛불문화제는 5월 말까지 비교적 질서정연하고 차분하게 진행됐으며, 율동이나 노래 등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곁들여졌다. 5월 17일 개최된 촛불문화제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소 분장을 하고 "무조건"이라는 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였고, 광우병을 주제로 한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즉흥적 반응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컸지만, 많은 10대들은 이번 문화제에 참여하면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촛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거나 문화제가 끝난 뒤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 촛불문화제참여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책임자의 역할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미숙하거나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됐던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저항하는 합리적 주체이자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정혜원, 2006).

2.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배경

청소년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다. 아직 오랜 세월을 더 살아야 할 그들에게 "광우병으로 일찍 죽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인터뷰 과정에서도 많이 언급됐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실제로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우병"이라고 믿으며 두려워했고,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될 것이란 사실을 걱정했다.

> 광우병이 가장 걱정이다.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광우병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다(사례 3, 고1 남학생).

>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면 청소년들에게는 광우병 발병에 대한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서구문화에 물들 것이다(사례 6, 중3 여학생).

이 같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리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광우병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확산되고 증폭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매우 깊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은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사건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민주화운동(5.18 광주민주화운동, 4.19 혁명), 2002년 월드컵, 미선이 효순이 사건을 가장 많이 언급했고, 지금의 쇠고기수입문제를 이야기하는 청소년들도 많았다. 중 · 고등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어렸을 때 겪은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7월에 만난 학생들은 전혀 달랐다. 5월에 나왔던 학생들처럼 흥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그냥 대통령이 너무 국민들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나와 봤다고 했다. "너무 단기간에 개혁을 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이 7월 시위현장의 청소년들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 그냥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친구랑 길가다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봤어요. 대통령이 좀 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어른들이 생각하는 건요 애들이 잘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애들도 관심 많은 애들이 진짜 걱정 많이 하고 그래서 나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통제해서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사례 23, 여고생).

3. 인터넷의 영향력

디지털·정보화 세대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매우 친숙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이다. “쇠고기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느냐?”는 질문에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이, 아래에 인용된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미국산쇠고기나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포털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얻는다고 응답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로 언급한 인터넷카페는 “엽기 혹은 진실” “정책반대시민연대” “대통령탄핵범국민운동본부” 등이었고,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 뉴스, “미친소닷넷”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이었다.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휴대전화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청소년층으로 확산됐고, 이는 곧 촛불문화제 참여로 이어졌다. 놀라운 것은 청소년들이 광우병에 관한 여러 정보와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쟁점들을 의외로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표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 인터넷과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카페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광우병은 단백질 변형으로 생긴 것이며, 방사능에도 절대 죽지 않고, 몇 천도를 가해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했다. 뉴스에도 나온 것이므로 이 이야기를 믿는다(사례 5, 고2 남학생).

>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중 ‘다음’에 “연예인 이제 그들을 말한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원래 연예인을 비판하는 건데, 카페 회원수가 100만 명 넘어요. 거기 카페에도 광우병과 현 대통령에 관련된 게시판이 두 개 생겼어요.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오는데 저는 그걸 보고 집회 일정 같은 것도 보고, 사람들 의견이나 여러 신문 기사를 봐요(사례 8, 고3 여학생).

> TV를 볼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쇠고기 관련 정보는 포털 사이트 뉴

스 속보에서 많이 얻는다. 좀 더 알고자할 때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다. '다음'에 있는 안티이명박카페에 많이 간다. 하루 약 30분 인터넷을 이용한다(사례 18, 고3 남학생).

이처럼 청소년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우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의사소통을 전개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에서 제기한 것과 달리 연예인의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촛불문화제에 처음 참여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의견표출의 한계를 깨달아 시험이 끝나자마자 참여하였다. 실제로 집회에 참여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조하고 있음을 느꼈다...연예인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연예인도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연예인의 의견이 청소년 집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심각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사례 3, 고1 남학생).

(촛불집회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신문, TV 다 봐요. (촛불집회에 대해) 주로 친구들과 얘기 많이 해요....연예인들 의견에 영향 받지는 않아요(사례 22, 고2 여학생).

제일 황당했던 거는 연예인이 선동해서 나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10년 쫓아 다녔는데 그 연예인이 만약 '팬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집회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무시할 겁니다. 연예인이 선동한다고 굳이 나갈 정도의 머리라면 그건 멍청한 게 아닐까요. 바로 제 앞에서 연예인이 촛불시위 한다고 해도 저는 관심 없어요. 연예인이 우선인가요? 제가 살아야죠(사례 8, 고3 여학생).

이처럼 청소년들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나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했다. 특히 댓글달기를 통해 문화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 오늘 세 번째 참석했는데 그동안 두 차례 참석하면서 느낀 것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자유발언대 이야기를 듣고 든 느낌과 문화제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 이유는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자유발언대에 나가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나간다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다. 쇠고기문제 뿐 아니라 대운하문제, 공기업민영화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었다(사례 7, 고2 남학생).

> 쇠고기관련 댓글을 많이 달았죠. '여러분 우리 식으면 안 돼요' '청계광장으로 오세요' '시청으로 오세요' 등등(사례 8, 고3 여학생).

한 고 2 남학생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형 누나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했다. "혼자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가자."는 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모여서 같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들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자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문화제 동참을 호소했다. 촛불문화제 행사 내내 청소년들이 카메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들고 촛불을 든 친구들의 모습을 찍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는데, 그들은 이러한 모습을 미니홈피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올려 집회분위기를 공유하고자 했다.

그러나 7월에 만난 학생은 엄마와 대화한 후 집회의 성격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 저도 처음에는 진짜 완전 심각한건 줄 알고, 엄마한테 엄청 심각한

> 거라고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다 오버하는 거라고 믿지 말라고 우리나라사람들이 그런 것이 심하다고...그때는 엄마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집회 나온)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사례 24, 고2 여학생).

청소년들은 집회 현장에서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공간적 근접성(proximity)보다는 이해관심을 매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이버공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4. 공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절반 이상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광우병 뿐 아니라 영어몰입교육,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운하문제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많이 접해서인지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많았다.

> 지난 정권 때는 너무 어려서 정치에 대해 몰랐다... 인터넷과 뉴스, 청문회, 100분 토론을 보면서 쇠고기 수입이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운하, 학교 자율화 프로젝트 등은 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사례 5, 고2 남학생).

> 국민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니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사례 21, 고3 여학생).

> 평소 환경에 흥미가 있어 대운하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다. 대운하와 관련, 학교에서 남한강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야기도 들었다. 수업시간에도 종종 대운하 이야기를 한다(사례 6, 중3 여학생).

> 솔직히 저는 민영화를 먼저 알아서, 민영화가 더 무서워요.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긴데, “야 우리 쇠고기 집회 끝나면 공부하는건가?” 이러면 “아니지, 의료보험 민영화 때 참석하고 수도요금 민영화 때 참석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민영화 때 참석하는 거지.”... 저희 엄마가 작년에 아프셨는데, 만약에 그 때 이미 민영화가 된 상태여서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끙끙 앓으시면 어떻게 했을까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 일은 장담을 못 하잖아요(사례 8, 고3 여학생).

> 사실, 대운하 때문에 현 정부의 여러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개인적으로 대운하는 반대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가 파괴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처음에 대운하에 관심을 갖게 돼 자연스럽게 쇠고기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사례 18, 고3 남학생).

이처럼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 청소년들이 미국산쇠고기나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포털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얻었다고 응답했다.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휴대전화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청소년층으로 확산됐고, 이것이 곧 촛불문화제 참여로 이어졌던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쇠고기수입문제 뿐 아니라 대운하문제, 공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공적 이슈에까지 관심을 보였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분명한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직설적이고 과감하게 표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제3절 웹사이트 내용분석

1. 분석의 목적과 배경

1) 분석의 목적

청소년들의 촛불집회참여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이제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밀접한 매체로 자리 잡았고, 사이버공간은 그들의 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더 익숙해 있다. 또한 그들은 지식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온라인공동체에 가입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다.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인터넷카페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음'의 아고라광장이나 인터넷카페 등은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주요 공론장이 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연예인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의 영향은 두드러졌다.

이 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카페 중 두 곳을 골라 주로 어떤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또한 어떤 글들의 조회 수가 높은지, 그리고 게시글에 대한 댓글 수 등을 알아봤다. 아울러 실제로 광우병 위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글들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역사적 범주로서 공론장(public sphere)의 개념은 독일 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에 의해 발전돼 왔다. 그는 17-18세기 유럽사회에서 공론장이 형성되는 과정과 20세기에 이르러 그것이 쇠퇴하는 과정을 비판이론의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분석했다(김종길·김문조, 2006). 그가 제시한 공론장은

개인들이 공공의 관심이나 공통적 이해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숙의하기 위해 모이는 사적 공간의 장이다(Fraser, 1997). 즉 공공영역은 공공적인 담론과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곳이다.

하버마스의 주장대로라면,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공평하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이처럼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개인적이며 커뮤니케이션 행위영역을 구성하는 생활세계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김종길·김문조, 2006).

하버마스가 제기한 공론장의 개념은 비판도 많이 받았다. 비판의 주된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가 제시한 공론장 개념이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공론장의 출현과 구조 및 기능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자유주의적이고 프롤레타리아적인 다양한 공론장을 고려하지 않았다(Fraser, 1997). 또한 부르주아 공론장의 개념은 지위의 불평등이나 권력의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력이나 기회의 배분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여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론장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며 인터넷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개방적이고 탈중심적인 인터넷의 특성상,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의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게시판을 통해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댓글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론장으로서 인터넷 게시판의 가능성과 한계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은 공론장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분석되어 왔다. 가령, 송경재(2005)는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정국 동안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을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 게시판은 '네트워크 정치참여'라 불릴 정도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형성된 새로운 정치참여방식을 형성했다.

또한 탄핵반대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만드는 등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는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된 다양한 정치참여의 방식들 가령 항의메일, 패러디, 글 나르기, 사이버 촛불시위 등을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참여와 구분해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로 규정하였다.

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정치참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이전에는 정치참여가 제한적이었던데 비해, IT 기반 네트워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시대 정치참여의 보편화는 일부 집단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해줬다. 셋째, 인터넷 네트워크는 정치참여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즉 항의메일, 촛불시위, 패러디,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한 다양한 방식들로 시민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네트워크 정치참여는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자원봉사나 모금의 활성화에서 잘 나타나듯이, 인터넷 네트워크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정재철(2006)은 '안티닉스운동' 게시판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시민운동의 공론화과정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안티닉스 운동은 사이트 운영자와 그를 따르는 적극적 토론참여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글들을 보면, 안티닉스운동에 대한 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대 글은 극히 적었다. 전반적으로 게시판 글의 논조가 안티닉스운동에 동조하고 있었다. 게시글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견/주장이 가장 많았고 욕설이나 비난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운영자와 적극적 참여자들이 토론의 과정에 중재자로서 개입하다보니 욕설과 비방이 줄어들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을 난장을 가미한 전통적 공론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몇몇 연구들은 인터넷 게시판이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라인운동을 촉진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토론방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공론장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김종길(2006)은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 분석을 통해 아직까지 우리나라 토론방이 민주적이고 성찰적인 공론장

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즉 토론참여 공간도 확대되고 게시글 구조도 다양해졌지만, 합의 도출과 관용의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 이해를 모색하기보다는 근거 없는 정보와 추측, 논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폄글과 댓글이 압도하고 있다고 한다. 상반되거나 상이한 의견들을 조정 또는 중재하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토론방에서 다뤄진 주제들은 대부분 다양한 의제에 대한 폭넓은 토론 보다는 정치관련 토론들이었다. 그는 인터넷토론방이 숙의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댓글에 대한 글쓴이의 책임성과 조정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토론 참여자들이 주요 사회적 의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윤영철(2000)도 2000년 1월 개설된 총선연대 사이트 게시판 분석을 통해 인터넷 게시판의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연구결과 이 게시판에는 총선연대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글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올라왔으며, 전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45%가 댓글일 정도로 게시판의 상호작용도 활발했다. 하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0% 밖에 안됐다. 근거를 제시한 경우라도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자신의 느낌이나 선입견에 입각한 즉흥적인 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게시판 토론이 숙의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즉 온라인 게시판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이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미·이준웅(2006)이 17대 총선 당시 '다음'의 '핫 이슈 토론광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특성과 이들의 토론행위를 탐색한 결과에 따르면, 읽기와 쓰기 모두 소수 활동가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글을 쓰는 행위 뿐 아니라 글을 읽는 행위도 소수의 적극적인 토론참여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읽기와 쓰기를 모두 열심히 하는 일부 논객들이 전체 글의 30%

가량을 차지해 많이 읽는 사람이 글도 많이 게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체로 연령이 높고 진보적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들이 더 많이 읽고 쓰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 토론공간이 주로 남성들과 교육수준 높은 시민들이 읽기와 쓰기에 참여하는 제한된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읽기 활동과 글쓰기 행위의 패턴도 다르게 나타났다.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꾸준히 읽기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와 달리, 글쓰기는 대통령탄핵안이 국회에 통과한 시점과 정동영 의장 사퇴 때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사그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터넷은 성숙하고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만드는 공론장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분석방법

이 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카페 게시글에 대한 '내용분석'을 한다. 내용분석은 메시지의 내용을 범주화해 분석함으로써 그 내용이 구성된 맥락을 추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주는 연구방법이다. 내용분석에서는 양적·질적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양적 분석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내용분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몇 개의 범주로 축소해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利點) 때문에 사회학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이 연구는 2008년 청소년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2개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양적으로 분석한다. 두 카페는 '엽기 혹은 진실'과 '쭉빵클럽'인데, 모두 연예인 관련 정보나 사진을 공유하는 공개된 사이트들이다. '엽기 혹은 진실'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쭉빵클럽'은 신생 사이트로서 최근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카페다. 회원 수는 오래 전에 개설된 '엽기 혹은 진실'이 '쭉빵클럽' 보다 훨씬 많다(아래 표 III-1 참조).

<표 Ⅲ-1> 분석대상 카페 개요

카페명	엽기 혹은 진실	쭉빵클럽
카페주소	http://cafe.daum.net/truepicture	http://cafe.daum.net/ok211
개설일	2000년 6월 7일	2008년 1월 29일
회원수	280만여 명	6만여 명
공개여부	공개	공개
카페목적	연예인관련 사진이나 소식을 공유하는 카페	연예인관련 사진이나 소식을 공유하는 카페
주요 게시판	- 공지게시판 - 씽씽씽 스포츠 천하 - 연예인 사진 자료실	- 연예인 정보방 - 연예인 갤러리 - 친목 게시판
촛불집회 관련 게시판	- 대한민국 바꾸는 힘: 국민이 주인이다(2002년 2월 개설) - 현장소식 이모저모(2008. 6. 2. 개설) - 현장지원 너도나도(2008. 6. 4. 개설)	- 사회적 이슈들 (2008. 5. 5.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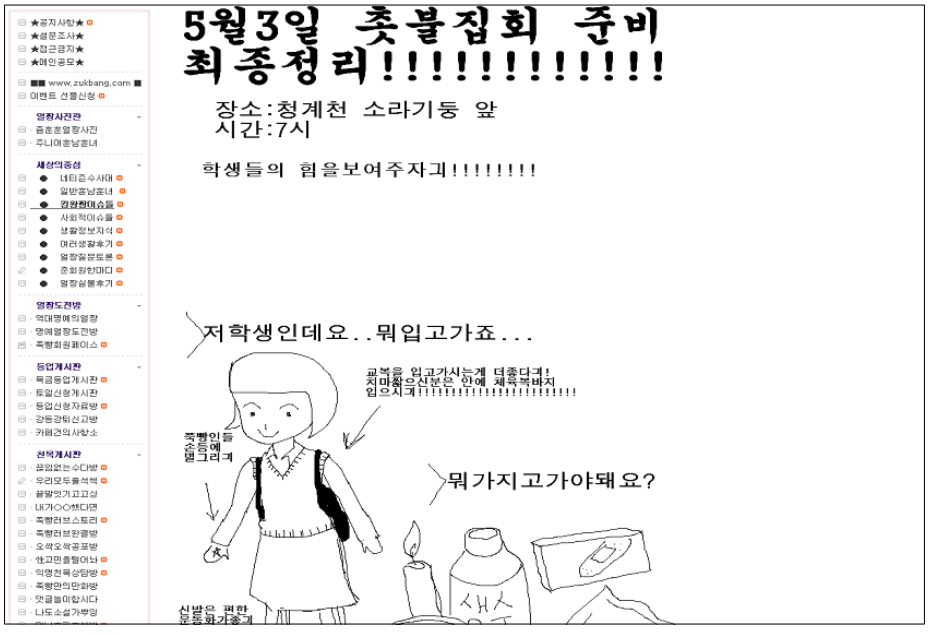
엽기 혹은 진실은 2002년 2월부터 사회나 정치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 '대한민국 바꾸는 힘'이란 게시판을 운영해 왔다. 2008년 6월 2일부터는 이번 촛불집회 현장 소식을 전하는 '현장 소식 이모저모'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했으며, 6월 4일에는 촛불 성금마련을 위해 '현장지원 너도나도'라는 게시판을 개설하여 보름가량 운영하기도 했다.

'쭉빵클럽'의 경우, 광우병에 관한 글은 2008년 3월 4일 처음 올라왔고, 이후 간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글과 촛불집회에 관한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가령, 5월 1일 한 회원은 "우리의 촛불문화제모임을 문자메시지로 시작해보자."며, 간결하고 객관적이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가 담긴 내용을 리플로 달아 그 중 몇 개를 골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촛불문화제가 처음 열린 5월 2일 '쭉빵클럽'에 게재된 한 게시물은 집회에 참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차림으로 가야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아래 <그림 Ⅲ-1> 참조).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에 대한 회원들의 호응이 커지자 카페 측은 2008년 5월 4일 '사회적 이슈들'

이란 게시판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촛불시위와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글을 이 게시판에만 올리도록 했다.

상기 2개 카페는 주로 연예인들의 사진을 올리고 연예인 관련 소식을 공유하는 클럽인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촛불집회 등이 회원들의 큰 관심을 끌게 되자 이들과 관련된 문제나 이슈를 다루는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게시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는데, 분석대상이 된 2개 게시판은 엽기 혹은 진실의 '대한민국 바꾸는 힘'과 쭉빵클럽의 '사회적 이슈들' 이었다.



<그림 Ⅲ-1> 촛불시위 참여 촉구 게시물

이 연구는 촛불집회가 가장 활발했던 2008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상기 2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모두 분석하였는데,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글들은 제외했다. 내용분석을 위해 먼저 두 명의 대학생이 2008년 8월 한 달 동안 게시글들을 분류하여, 미국산쇠고기수입문제와 직접 관련된 2,105건의 게시글에 대한 코딩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코딩에 앞

서 대학생들은 코드 북(부록 I 참조)을 보며 충분한 코딩 훈련을 받았다.

우리는 코딩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게시된 글들을 미리 읽어 오게 한 후, 무작위로 100개의 글을 골라 코더 간 신뢰도 계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코더 간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즉, 게시글의 성격은 .93, 게시글의 주제는 .87, 게시글의 논조는 .92 등이었다. 광우병 위험과 관련된 글들 중 출처를 밝힌 10개의 게시글에 대한 구체적 출처를 적는 문항에서는 9개가 일치해 .9의 일치도를 보여 주었다.

3. 내용분석의 결과

1) 게시글 작성자 수

2008년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양 카페에 올라온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된 글은 모두 2,105건이다(<표 Ⅲ-2> 참조).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은 모두 758명으로 1인당 평균 2.78개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쭉빵클럽의 경우 22명이 모두 540건의 게시글을 올려 이들이 전체 게시글의 절반 이상을 작성했다. 엽기 혹은 진실의 경우도 16명이 390건의 게시글을 작성해 이들이 전체 게시글의 38%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일부 적극적인 참여자에 의해 대부분 게시글 작성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2> 게시글 작성자 수

구 분	쭉빵클럽	엽기 혹은 진실	계
게시글 수	1,076	1,029	2,105
작성자 수	348	410	758
1인당 평균 게시글 수	3.09	2.51	2.78

2) 게시글의 성격

게시글의 성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퍼온 글(67.8%)이 가장 많았고, 의견/주장(16.4%), 단순정보전달(7.4%), 질문/대답(4.4%) 순이었다. 욕설이나 비방을 담은 게시글은 양 카페에서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아 비교적 건전하게 게시판 운영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카페 운영진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카페의 경우, 운영진이 판단하기에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악플이나 인신공격성 글, 욕설이 담긴 글은 삭제했다. 한편, 양 카페 간 게시글 성격의 차이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카이제곱=93.343, 자유도=6, p<.05)

<표 Ⅲ-3> 게시글의 성격별 비율

단위: %

성격	쭉빵클럽	엽기 혹은 진실	계
의견/주장	15.3	17.5	16.4
질문/대답	6.4	2.2	4.4
욕설/비난	4.1	0.0	2.1
건의/권유	2.0	0.7	1.4
퍼온 글	65.2	70.5	67.8
단순정보전달	5.8	9.1	7.4
기타	1.1	0.0	0.6
합계(N)	99.9(1,076)	100.0(1,029)	100.1(2,105)

3) 게시글 간의 상호작용

게시글 작성자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전체 댓글 수는 평균 12.2개로 높게 나타난 반면, 답글 수는 0.01개로 매우 낮았다. 즉 카페 가입자들은 주로 댓글을 많이 쓰며, 답글은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댓글이 하나도 없는 게시글은 모두 108개(엽기 혹은 진실의 경우 65개, 쭉빵클럽의 경우 43개)로서 전체 게시글의 5.1%에 불과했다. 게시글의 조회 수 평균은 당연히 카페 가입자가 많은 엽기 혹은 진실이 쭉빵클럽 보다 5배가량 높았다.

<표 Ⅲ-4> 게시글 작성자 간의 상호작용

	쭉빵클럽	엽기 혹은 진실	전체 평균
댓글 수 평균	14.6	9.7	12.2
답글 수 평균	0.01	0.02	0.01
조회 수 평균	180.6	878.0	521.5

4)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글

아래 <표 III-5>와 <표 III-6>은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글을 보여준다. 두 카페 모두 촛불집회 및 경찰진압과 관련된 글들이 비교적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쭉빵클럽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당선 무효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시글이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촛불시위에 반대하는 한 네티즌의 글과 사진[13], 미니홈피에 달린 댓글도 많은 회원들이 읽었다. 하지만 이 글(1381번)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 게시글에는 모두 1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이 여자의 외모를 비아냥거리거나 욕하는 내용이었다. 2003년 영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한 소녀의 사진도 비교적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엽기 혹은 진실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이 비교적 많은 조회 수를 기록했고, 전경의 촛불집회 옹호 글을 미니홈피에 게재한 내용이 전체 게시글 중 가장 많이 읽혔다. 각종 연예인 팬클럽에서 만든 광우병 홍보물 모음도 조회 수 기준 상위에 랭크됐다. 57개의 많은 댓글이 달린 이 게시물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 빅뱅 등)의 팬클럽이 광우병에 관한 위험을 알리고 촛불집회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모아 놓은 것이다. 가령, 한 팬클럽은 다음과 같이 촛불집회 참여를 호소하였다.

13) 이 네티즌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불법집회 STOP'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존하지 않으며, 미국 자국민마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빅뱅이 어떠한 경로로든 광우병에 걸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5월 3일 저녁 7시~9시 청계천 소라기둥 앞에서 촛불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막아야 합니다.

5) 댓글 수 상위 10개 게시글

분석대상인 양 카페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상위 10개 게시글은 <표 III-7>과 <표 III-8>에 정리되어 있다. 쭉빵클럽의 경우, 이명박 당선 무효화 운동을 홍보하는 글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고, 촛불집회 일정 홍보 글에 두 번째로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보궐선거 및 경찰진압 시 대처법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엽기 혹은 진실의 경우,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은 "5월 6일 청계천 집회가 불법이므로 여의도에서 모이자."는 알림 글[14]이었다. 그리고 한일해저 터널 추진을 반대하는 글이 2위를 차지했다.

<표 Ⅲ-5> 쭉빵클럽의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글

글번호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조회 수
1176	이거 꼭읽어 .....이것밖에없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 무효화 가능성 시사	2,085
1217	촛불시위 진압 논란 "바지벗기고 가슴 만지고"	경찰의 강경대응	1,855
1381	★이낸이 김지연이긔 모르시는분들이 너무 많은것같긔	촛불시위 반대하는 네티즌(김지연)의 글과 사진	1,573
1384	★ 김지연 미니홈피에서 웃긴댓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촛불시위 반대하는 네티즌(김지연)의 미니홈피에 달린 댓글	1,527
262	★★이명박어록★★	각종 이명박 어록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쓴 글	1,262

14) 이 글은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시청과 청계천 주위에서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에, 청계천 대신 여의도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할 것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글번호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조회 수
1196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홈페이지 해킹당했음!	전경 기동대 홈페이지 해킹 사진	1,042
907	지금 살수차에 정통으로 물맞은 고3학생 실명!!	살수차에 맞은 고3여고생이 실명 위기라는 현장 소식	1,009
1410	헉~ 오늘 서울역 사진...	서울역 앞에서 벌인 촛불반대 집회 현장 사진	991
1192	어떻하긔 ㅠㅠㅠ 그버스밑에서 ?히신 이나래씨 뇌진탕판정이래여 ㅠㅠㅠ	경찰의 강경대응	927
46	광우병걸린소녀 사진有★	광우병에 걸린 소녀의 사진	925

<표 Ⅲ-6> 엽기 혹은 진실의 조회 수 상위 10개 게시글

글번호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조회 수
88589	현 의경이 싸이에 쓴글..... (이거보고 울뻔했음)	전경이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재함	4,713
87688	■■■■■ 5월6일 청계천시위는 불법입니다(필독!) ■■■■■	5월 6일 청계집회는 불법이므로 여의도에서 모이자는 알림글	4,276
87565	아이돌 팬클럽 공지 모음	각종 연예인 팬클럽에서 만든 광우병 홍보물 모음	3,450
87802	게시글 삭제	게시글 삭제	3,403
87545	이명박 〃 독도 포기 〃	이명박 정권이 독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함	3,381
88421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특공대가 촛불시위 진압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경찰의 강경대응을 비난	3,359
88562	시위중에도 잊지 않는 우리민족의 개그혼	집회 현장에서 보여준 참가자들의 재미있는 입담과 행동 모음	3,348
87568	이대통령이 독도 포기 절차를 시작했답니다!!	이명박 정권이 독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함	3,244
88411	어제 편안히 주무셨던님들 똑똑히 보십시오	5월 31일과 6월 1일 새벽에 있었던 경찰의 강경대응을 사진과 함께 정리함	3,213
87917	영광 한우협회 부회장 자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관한 영광 한우협회 부회장의 자살 소식	3,211

<표 Ⅲ-7> 쭉빵클럽의 댓글 수 상위 10개 게시글

글번호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댓글 수
1176	이거 꼭읽어 ......이것밖에없어	이명박 당선 무효화 운동 홍보	900
1079	6월 6일 승리의 대한민국 100만 촛불시위	촛불시위 일정 홍보	409
845	6월 4일 보궐선거!!	보궐선거 꼭 해요(한나라당 찍지 마요)	362
1064	●●전경출신의 전경을 이기는 손자병법(묻히면안대ㅠㅠ)	경찰 진압 시 대처법	180
896	이래도 미국이 환상의 나라입니까?	뉴욕 유학생이 정리한 뉴욕의 실체	153
901	국민 소환제 꼭 서명 합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네요..	국민소환제 서명 홍보	152
892	여러분 봐주세요. 중요해요	조중동 반대, MBC 한겨레 경향 지지	110
900	아고라펌 _ 이명박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ex:시위중 구호관련문제제기) 깁니다	국민소환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	109
957	게이버순위 빨리올리는법 묻히면안돼	네이버 순위 올리기 운동 노하우	109
1381	★이난이 김지연이긔 모르시는분들이 너무 많은것같긔	촛불시위 반대하는 네티즌(김지연)의 글과 사진	100

<표 Ⅲ-8> 엽기 혹은 진실의 댓글 수 상위 10개 게시글

글번호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댓글 수
87688	■■■■■ 5월6일 청계천시위는 불법입니다(필독!) ■■■■■	5월 6일 청계집회는 불법이므로 여의도에서 모이자는 알림글	350
88604	───── 대운하보다 더 중요!!! 【 韓-日 해저터널 건설】을 막아야하는 이유!!! ────	한일 해저터널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추진 반대를 주장	157
88574	지방분들...버스 대절해서 오면 안된답니다....	지방에서 버스 대절하여 올 경우 경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112
87917	영광 한우협회 부회장 자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관한 영광 한우협회 부회장의 자살 소식	101
88533	게시글 삭제	게시글 삭제	89
87568	이대통령이 독도 포기 절차를 시작했답니다!!	이명박 정권이 독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함	70

글번호	게시글의 제목	게시글의 내용	댓글 수
87545	이명박 〃 독도 포기 〃	이명박 정권이 독도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함	66
87882	李대통령 "어느 나라가 해로운 고기 사다 먹이겠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오찬 발언에 대한 비난	65
87837	조경태의원 질의 동영상....제가 나온다고 했죠?..ㅋㅋㅋㅋ	미국산 쇠고기 수입 청문회에서 강하게 정부를 비판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지지	59
87565	아이돌 팬클럽 공지 모음	각종 연예인 팬클럽에서 만든 광우병 홍보물 모음	57

6) 게시글의 주제

양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은 주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촛불시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정부의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과 대운하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들이었다(<표 Ⅲ-9> 참조). 특히 쭉빵클럽에 실린 광우병위험을 알리는 게시글의 비율이 엽기 혹은 진실의 경우보다 두 배나 높았다. 양 카페 간 게시글 주제의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카이제곱=93.1, 자유도=8, $p<.05$).

<표 Ⅲ-9> 게시글의 주제별 비율

단위: %

주제	쭉빵클럽	엽기 혹은 진실	계
광우병 위험	16.6	7.2	12.0
촛불시위 정보 공유	19.9	18.6	19.2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대응 비판	16.3	11.4	13.9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17.6	22.1	19.8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비판 및 진보언론 및 단체 옹호	10.8	9.4	10.1
오프라인 및 온라인 운동	6.5	11.6	9.0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및 수입과정	1.8	4.6	3.1
불법 및 과격시위에 대한 우려	1.0	2.1	1.6
기타	9.6	13.1	11.3
합계(N)	100(1,076)	100(1,029)	100(2,105)

<표 III-10>을 보면 5월에서 6월로 넘어갈수록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게시글은 급격히 줄고,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대응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대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5월 초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던 촛불집회가 5월 24일 이후부터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로 폭력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월 31일엔 처음으로 경찰의 살수차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게시글 중 구체적인 출처를 명시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게시글들이 광우병위험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감성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10> 게시글의 월별 주제 변화

단위: %

주제	쭉빵클럽		엽기 혹은 진실		계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광우병 위험	22.6	5.9	9.1	1.9	15.5	4.3
촛불시위 정보 공유	18.4	22.5	19.2	16.8	18.8	20.2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대응 비판	9.1	28.9	7.4	22.8	8.2	26.4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20.9	11.6	24.4	15.3	22.8	13.1
보수언론과 한나라당 비판 및 진보언론 및 단체 옹호	9.7	12.7	9.9	8.2	9.8	10.8
오프라인 및 온라인 운동	6.0	7.5	11.0	13.1	8.6	9.8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및 수입과정	2.0	1.3	4.2	5.6	3.2	3.1
불법 및 과격시위에 대한 우려	0.9	1.3	1.7	3.4	1.3	2.1
기타	10.3	8.3	13.1	13.1	11.8	1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689	387	761	268	1,450	655

학교급식이나 생리대,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것들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많은 것은 카페 가입자들이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 나 지금 고기 먹고 죽으란 거냐. 아니 생리대에도 뼈가 들어간다면서...나 어제 롯데리아 가서 맛 잇는거 먹엇어 나 죽으면 어떻게?

> 타액으로도 감염되므로 연인과의 키스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좁쌀만한 소고기로도 광우병에 감염되고 100% 사망이며, 예방책도 치료약도 없습니다.

> 모기로도 충분히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긔.

>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이라서 다행히 급식은 안 먹지만, 그 다음주에 거의 광우병위험음식들이 나오긔...쇠고기무국 볶음밥 떡볶이 다시마무국 돈가스&소스 쇠고기 무숙채 육개장 등등등

> 저 어제 돈가스도 먹고 목욕도 했느데 광우병 걸린 기분들긔 그런 기분 드닌깐 몸까지 뻐근해지고 콕콕찌름 그런생각 안해야겟져...진짜 아 떨려여..휴...

출처를 명시한 게시글의 정보원을 살펴본 결과, 다음 카페 및 아고라가 36.3%로 가장 많았고, 국내외 언론(22.6%), 인터넷 및 문자(13.7%), 국내외 전문가(13.7%) 순이었다.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통신문 등 학교생활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보다는 인터넷카페와 인터넷에서 광우병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외전문가의 경우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의[15] 글이

15) 우희종 교수는 미국 당국의 허술한 검역시스템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줄곧 지적해 온 과학자 중 한 사람이다.

세 건이나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표 Ⅲ-11> 광우병 위험 관련 게시글의 출처별 비율

단위: %

출처		쭉빵클럽	엽기 혹은 진실	계
없다		57.0	36.5	51.0
있다		43.0	63.5	49.0
글의 출처	다음 카페 및 아고라	51.9	10.6	36.3
	언론(국내외)	13.0	38.3	22.6
	인터넷 및 문자	13.0	14.9	13.7
	전문가(국내외)	1.3	19.1	8.1
	선생님 및 친구	7.8	0.0	4.8
	정치인	1.3	10.6	4.8
	학교 통신문 및 교육용 비디오	6.5	0.0	4.0
	기타	2.6	4.3	3.2
	정부	2.6	2.1	2.4
합계(N)		100(179)	100(74)	100(253)

7) 게시글의 논조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된 게시글들의 논조를 살펴본 결과, 전체 게시글의 81.9%가 미국산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논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2> 참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한 게시글은 극히 드물었다.

<표 Ⅲ-12> 미국산 쇠고기수입 관련 게시글의 논조 비율

단위: %

주제	쭉빵클럽	엽기 혹은 진실	계
긍정적	0.6	0.0	0.3
중립적	19.0	16.6	17.8
부정적	80.5	83.4	81.9
합계(N)	100(1,075)	100(1,029)	100(2,104)

4. 분석결과의 해석

앞에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연예관련 이야기를 다루는 인터넷카페는 광우병에 관한 여러 정보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촛불시위가 열리는 시간 및 장소를 알리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또한 집회참가자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장이 되기도 했고, 집회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여러 정책들 가령, 공기업민영화나 대운하 정책, 학교자율화 등을 성토하고 비판하는 장을 되기도 했다. 즉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정부 및 주류 언론의 담론에 맞서 광우병의 전염경로나 위험음식, 광우병관련 사진 등 광우병으로 인해 초래될 위험을 알리는 대안적 공론장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카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연결하는 역할도 했다. 쭉빵클럽의 한 회원은 청소년 전문 인터넷신문인 바이러스와의 온라인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집회경험을 이야기 했다(신청이, 2008 참조).

> 깃발은 따로 없었고 교복과 손등의 별 그림 정도로 서로를 확인했어요. 매번 30명씩 모였고 미처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응원했어요. 실시간으로 시위현장을 함께 보거나, 전화로 현장상황을 전달받은 후 카페에 글을 올리면 다른 카페회원들이 힘내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또 어떤 회원은 물과 빵을 잔뜩 사와 나눠주고 가기도 했어요.

이처럼 인터넷카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매개하는 역할을 했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조대엽(2008)의 주장처럼, 토론방이나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자발적 집단들은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문제를 공유한 뒤, 이를 오프라인에서의 시민행동으로 연결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발적 집단들이 제3의 결사체로서 시민단체가 갖는 직접행동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조직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을 '제4의 결사체'라 부르고 있다.

카페 게시글의 주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집회가 시작된 5월에는 주로 광우병위험을 알리고 현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나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본격화된 6월에는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는 글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즉 촛불집회가 시작될 즈음에는 광우병에 관한 정보 공유가 많았으나, 집회가 과열된 이후부터는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집회상황을 공유하는 글들이 많아졌다.

인터넷 카페들은 촛불집회를 다루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앞서 분석한 인터넷카페들이 공론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앞에서 본 것처럼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의 상당수가 20명 안팎의 회원들에 의해 작성됐다. 이는 게시글의 작성이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댓글의 경우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독점됐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양 카페 게시글들의 댓글 작성자를 조사한 결과[16], 쭉빵클럽의 경우 겨우 두 명의 회원이 전체 댓글(900건)의 45%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3> 참조). 엽기 혹은 진실의 경우에도 7명이 전체 댓글의 63.4%를 올렸다(<표 Ⅲ-14> 참조).

인터넷 카페가 공론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게시글의 논조가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다. <표 III-12>에도 나타났듯이,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대부분의 글들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논조를 지니고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관련해 다양한 논쟁이 펼쳐질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일 방향적인 글들이 게시판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인터넷은 이미 확립된 커뮤니티를 보강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믿음이나 지식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다(Russell, 2001). 그러므로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표 Ⅲ-7>과 <표 Ⅲ-8>참조.

<표 Ⅲ-13> 쭉빵클럽에서 많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작성자

작성자	댓글 수
탑퐈사랑해	210
ⓧ승리의최승현	198
ⓧ탬니득템	76
--	57
ⓧ 이 나 영	57
ⓧ안녕릴리	49
ⓧ방가빵가룽	29
블라라라라라	28
ⓧ흑채	27
ⓧ겸댕이	23
ⓧ이명박좀죽여...	23
ⓧ박 유 천	19
조인성.	17
겸댕하구시포	16
ㅇㅇ메마른사람	13
ⓧ김재중	12
우사미	11
ⓧ뿌앙소년	10
송 백 경	7
ⓧ[킹왕짱]뿌잉	6
16.달님	1
똥싸	1
석 인 혜	1
제비사랑하긔	1
ⓧ강등하면쟈살	1
ⓧ나는야왕쮸	1
ⓧ땅꾸	1
ⓧ뭐이년아?	1
ⓧ쏠 라빔	1
ⓧ안뇽하쩨여	1
ⓧ야너나알지	1
ⓧ태봉짱	1
총합계	900

<표 Ⅲ-14> 엽기 혹은 진실에서 많은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작성자

작성자	댓글 수
ⓧ달제	54
ⓧ 강민호	45
ⓧ아놔그건아니...	28
↑그것도이름이...	26
닻별?	25
질풍농노의시기	24
ⓧ오마쒜따뿌레	20
옥 희	17
섹시할머니♥	12
숨질래?	11
ⓧ빅뱅동영배	10
Ψ뿌왕뿌왕~	10
영웅재난	9
귀족3세	7
문 정혁	6
승리의빅뱅	5
유명회원	4
이동해,	4
입싸더라던컨	4
푸훗-_,-	4
ⓧ강지환	4
ⓧ시밤바쳐키맛	4
딱콩이	2
붕어킹	2
에뜨왈	2
응아야	2
ⓧ근처초딩	2
ⓧ닉네임은재밌...	2
15소년감금기	1
김공비2	1
휘르교가잠들때...	1
흰풍선은H.O.T.	1
ⓧBeyonc...	1
총합계	350

퍼온 글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표 III-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퍼온 글은 전체 게시글의 67.8%를 차지했다[17]. 비록 욕설과 비방이 담긴 글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게시판이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광우병위험을 알리는 게시글의 경우, 글의 출처가 뚜렷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이는 광우병위험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게시판을 통해 표출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근거 없는 글들은 광우병에 관한 위험을 근거도 없이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광우병에 관한 청소년들의 두려움은 심지어 수돗물에 까지 번져 샤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 정말 너무 불안해서 그러긔...저 지금 쌀 씻어서 앉혀야 하는데 수돗물에 그 프리온 들어갔을까봐 아침부터 씻지도 못하고 돌겠긔...

> 광우병 때메 물로도 감염된다고 해서 도저히 목욕하기 겁나긔...내일 학교가서 목욕 안할수도 없지 않긔...

이처럼 과학적·구체적 근거가 없는 글들은 광우병에 관한 지나친 공포와 광우병전염과정에 대한 왜곡된 정보나 지식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이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지닌 글들을 많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게시판 토론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도 객관적 증거나 합리성을 지닌 주장들이 많아야 한다(윤영철, 2000).

게시판 운영자들이 인신공격성 글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글은 줄었으나, 일부 게시글에 대한 댓글에는 비방성 글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한 한 네티즌의 글(<표 Ⅲ-7> 참조)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비방성 욕들

17) 앞서 논의한 윤영철(2000)의 연구에서는 퍼온 글이 게시판에 올라 온 전체 글의 2.0%에 불과했다.

이었다. 전·의경 등이 시위대 폭행에 의해 부상당한 사례를 발표한 기사(퍼온 글)에도 경찰을 욕하는 댓글이 많았다. 이처럼 무조건 욕을 하거나 외모를 비아냥거리는 글 등은 게시판의 합리적 토론기능을 마비시킨다.

비방성 댓글은 앞서 언급한 김경년·김재영(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권상희·김익현(2008)의 조사결과 인터넷 뉴스이용자들은 댓글의 품질과 내용성에 비교적 낮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댓글공간은 여전히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댓글 공간은 아직까지는 진지한 토론과 의견 공유의 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한겨레 주제토론방의 경우도 11%만이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토론방의 관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김종길·김문조, 2006). 이러한 관용성 부족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요컨대, 인터넷카페 게시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이 새로운 열린 공공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그 폐해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만 인터넷카페가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분석결과의 함의

제1절 청소년의 중요성
제2절 세대 간 소통의 문제
제3절 청소년정책의 새 방향
제4절 청소년 행정조직 선진화

제4장 분석결과의 함의

제1절 청소년의 중요성

2008년 촛불집회는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남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세대의 재발견이다. 지난 2002년 전국을 뒤덮었던 월드컵 응원전에서도 한국사회는 청소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2002년에는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발랄함, 열정과 성숙함, 인터넷을 통해 생성되는 집단성, 그리고 이전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문화적 차원의 애국심 등을 보았다. 그로부터 6년 뒤, 우리는 위의 특성에 더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 자기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적극성 등 청소년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다.

옛날부터 현인들은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라고 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청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미래를 책임질 세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바로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자긍심을 드높인 것은 모두 청소년들이었다. 예컨대, 2002년 월드컵의 스타 선수들과 응원단, 2002년 대선과 총선 돌풍의 중심축, 미국 골프계의 한국낭자군, 세계를 지배하는 바둑기사들, 그리고 휴대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등 반도체 산업의 주요 소비층, 이 모두가 우리의 청소년들이다. 동남아 한류열풍의 주역도 청소년들이고, 200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광우병 파동의 중심축도 청소년들이었다.

이제는 청소년이 자라서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아니다. 현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며, "소비의 주체"인 동시에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다.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제반 사회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21세기는 고령사회이고, 핵가족은 어떤 형태든 다른 모습으로 대체될 것이며, 교육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탈학교'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는 급속히 글로벌,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다.

사회가 급격히 변할수록 청소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34~36). 무엇보다 우선 청소년은 눈부시게 발달하는 정보기술을 가장 잘 따라갈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첨병이기 때문이다. 산업기술과는 질적으로 다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력과 창의력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연령과 반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청소년은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 복잡한 컴퓨터 네트워크 속에서 유연하게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유능한 정보원이다.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이버 공간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의 편린들을 찾아내어 종합하고 조합하는 능력이며,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청소년들이다. 그러므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감성과 적응력, 구성주의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셋째, 수없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부딪치는 지구촌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상호작용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글로벌 시대의 개척자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도 적은 편이다. 글로벌 시대의 이동성과 다양성, 이질문화에 대한 수용성 측면에서도 청소년들이 기성세대 보다 훨씬 앞선다.

넷째,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청소년들이야말로 사회적 활력(vitality)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불과 10여년 후 맞이하게 될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비율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역량강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상과 역할이 변하고 있다.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청소년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해, 모든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생애역량 계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이나 직업능력, 국제적 감각, 청소년의 인권과 참여, 사회 발전적 역할 등이 새로운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높이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청소년을 소중하게 여겨 왔다. 국내에서도 선거연령의 하향 조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인권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청소년의 진정한 사회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우리도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억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사회변동과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한국은 특히 청소년 개개인의 강화와 자아실현을 통해서만 사회적 활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 청소년들의 역동적 모습은 새로운 도약의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한국이 21세기의 도전적 환경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 장기적, 통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과 노년층이 조화된 “푸른 은빛 사회”를 이룩함으로써만 디지털·글로벌 시대 선진한국의 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세대 간 소통의 문제

2008년 촛불집회는 지금 뒤돌아보면 왜 그렇게까지 진행되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초기에 현장에서 관찰한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는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촛불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깨끗이 집회장소를 정리하는 모습, 자유발언대를 통해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 등은 지금의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식들을 잘 보여주었다.

우려와 달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값지고 소중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일반시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회적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있었다. 특히 많은 청소년들은 연예인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배후세력의 사주를 받고 문화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촛불집회의 발화점은 10대 청소년들이었고, 인화물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집단히스테리(mass hysteria) 현상이었으며, 인화물질에 불을 붙인 것은 MBC PD 수첩이었다. 그리고 근거가 빈약한 루머에 청소년들이 그처럼 집단히스테리 현상을 보이게 된 배경적 요인은 학교생활의 답답함, 입시에 대한 중압감, 수시로 바뀌는 학교행정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른 바 웰빙(well-be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이었다.

촛불집회의 원인은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정서적 불안정 같은 청소년 세대의 특성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청소년을 도외시하는 한국사회의 특성에 있다. 촛불집회의 확대과정을 보면 이 점이 좀 더 분명해진다. 왜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자그마한 촛불집회가 광화문에 컨테이너박스 차단벽을 쌓아야 할 정도까지 그처럼 크게 타 올랐을까? 설령 MBC PD 수첩이 어떤 의도를 갖고 왜곡된 프로그램을 내 보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처럼 청소년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 전체를 그렇게 혼란으로 몰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상 근거 없는 루머로 청소년들이 그처럼 패닉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청소년들이 기성사회와 소통부재 상태로 방치돼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수정권에 불만이 컸던 30대층과 다양한 정치세력이 청소년들에게 그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진보진영이 보수진영보

다 청소년들과 더 잘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교조 교사와 보수 성향 교사의 학생친밀도를 비교해 보아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이명박 정권의 청소년 정책을 비교해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진보진영도 부족하긴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은 청소년들의 인권과 참여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보수진영은 청소년들을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며 청소년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가치부가이론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적절한 통제메커니즘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초기에 발화지점에 정확히 살수하지 못했고, 엉뚱한 곳에 그것도 산발적으로 살수했기 때문에 불꽃을 계속 키워 간 것이다. 예컨대, 당국자는 청소년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만 주장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양국 쇠고기업자 및 부시 대통령의 협조까지 얻어서 사실상 재협상에 버금갈 정도로 수정하지 않았던가?

또한 촛불집회 대응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대응하는 대상과 쟁점이 발화지점과 어긋났다. 초기 대화와 설득의 구체적 대상은 마땅히 10대 청소년들이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정치인이나 사회원로들과의 대화에 주력했다. 행동에 나선 청소년들보다는 그들을 부추긴다고 믿는 일반인과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다. 연구자들의 현장관찰에 따르면, 6월 이후에는 정치세력이 시위를 주도했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청소년층과 순수 일반인들이 다수였다.

구체적 대응내용 또한 어긋났다. 당연히 청소년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인적쇄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챙기는 정치인들의 비상한 발상과 언동은 정말 놀라웠다. 촛불집회는 청소년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사단인데,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청소년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거나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정파적 이익 챙

기기와 계파 세력 확장에 이용하는 탁월한 기민함을 보여주었고, 당국의 대응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겪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성세대가 과거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아주 못마땅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오늘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장하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성세대가 과거의 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비해, 청소년들은 이미 미래의 공기를 호흡하며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사회의 구조는 과거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며,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도 산업 세대와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살아갈 사회는 기성세대가 살아 온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에게는 못마땅해 보일지 모르는 이러한 청소년의 모습이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나 기성세대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조건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새로운 정치참여집단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들이 다소 거친 표현을 하거나 광우병과 대운하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판단보다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학교나 가정, 사회가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컨대, 2008년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적극적

의사표현과 참여, 사회적 쟁점과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을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진지한 토론과 격려를 통하여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청소년정책의 새 방향

1. 한국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이란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하는데, "청소년들의 인권보호, 사회참여 증대, 보호 및 지원, 잠재력 계발이나 역량강화 등 개인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반 수단과 집행방법을 담은 기본지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이용교, 1995: 10~11).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은 크게 보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구려의 경당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서를 읽고 무예를 연마하게 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청소년 수련 기관이었다. 그리고 신라의 화랑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설치한 청소년 단체로서, 명문가 자제들로 하여금 명승지를 찾아 심신을 단련하며 호국정신을 키우게 한 수련활동의 전형이었다. 경당과 화랑도는 다 같이 국가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청소년정책이 시행된 것은 196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61년에 미성년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정책이 처음으로 수립·시행되었기 때문이다(<표 IV-1> 참조). 1964년에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77년에는 "청소년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청소년들의 선도·지도·육성·보호·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은 이른 바 '청소년문제' 해결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였으며, 문제 청소년들을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1987년 이른 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 체육부가 설립되면서 '청소년국'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에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고, 1990년에는 청소년헌장을 제정했다.

1990년에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되면서 '청소년정책 조정실'을 설치했으며, 1991에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에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했다. 1993년에 체육청소년부는 문화체육부로 개편되었다.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에 국무총리실로 그 소속을 바꾸었다. 이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는 주로 청소년 육성정책을 담당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국의 '육성' 정책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 정책이라는 양대 기둥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부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청소년단체들까지도 육성과 보호로 나누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사실 '육성'과 '보호' 정책이 별개일 수는 없으며, 청소년정책이 '육성'과 '보호'로만 나누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2004년부터 청소년 계에서는 육성과 보호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권·참여·잠재력 계발·역량강화 등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청소년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표 Ⅳ-1> 한국의 청소년담당 행정부서 및 주요정책 변천사

시 기	행정부서	주 요 정 책
’48. 8~’64. 9	내무부	청소년 및 일반인에 대한 산발적 규제 미성년자보호법의 금지행위 규정에 근거(’61. 12)
’64. 10~’77. 8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내무부 보안과)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교정에 대한 대책강구, 문제 청소년 중심의 소극적 행정
’77. 8~’83. 3	청소년대책위원회 (총리실 기획조정실)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대책 시도, 문제청소년 중심의 소극적 행정
’83. 4~’85. 1	청소년대책위원회 (문교부 청소년과)	청소년업무를 문교부 정책의 일부로 취급
’85. 2~’88. 6	청소년대책위원회(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청소년 선도/지도/육성/보호에 관한 종합기획 문제청소년 중심의 소극적 행정
’88. 6~’90. 9	체육부 청소년국	청소년 보호/육성/선도/지원에 관한 조정·총괄, 여전히 문제청소년 중심의 소극적 행정, 청소년육성법 제정(’88.7), 청소년헌장 제정(’90. 5)
’90. 9~’93. 3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청소년육성의 개념정립(선도/지도/보호/육성/교정/지원 등), 전체 청소년에 대한 행정으로 전환, 조정(총리)과 총괄(장관) 기능 구분, 한국청소년기본계획(’91. 6), 청소년기본법(’91. 12)
’93. 3~’98. 2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93. 9), 청소년보호업무 별도 설정, 청소년보호법(’97. 3),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97. 7)
’98. 2~’05. 4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98. 7), 청소년 헌장 개정(’98. 10), 청소년보호위원회 총리실로 이관(’98. 2),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00. 7),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수립(’03. 12)
’05. 4. 27	총리실 청소년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 통합
’06. 3. 30	총리실 국가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변경
’08. 3. 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

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드디어 2005년에 서로 다른 부서로 있던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었고, 이듬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도 육성과 보호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의 독립된 행정부서로 통합되었던 청소년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시 다른 부처로 편입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내 아동정책과 통합되어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된 것이다. 청소년정책의 최고위 직급도 차관급 청소년정책위원장에서 실장급으로 낮아졌다. 행정부서 개편에 따라 각종 청소년관련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있으며, 그 동안 청소년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청소년기본법"도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18] 곧 다른 연구원과 통·폐합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정책의 내용이 중요하지 조직의 위상이나 법안의 독립성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이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 행정조직 및 법률개정에 대해 청소년계 인사들은 대부분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곧 청소년정책의 위축을 가져 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청소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복지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순히 즐겁고 만족한 생활 또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려는 것만도 아니다. 정책이란 개개인의 삶에 관심은 가지되, 궁극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 또한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은 차관급으로서 현재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의 최고위 직급이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청소년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단지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도 그 궁극적 지향점은 국가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좋은 정책은 시대적 배경과 대상의 특성, 그리고 사회 환경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초기에는 생산방식이나 생활양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으나, 어느 사이에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제도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언론제도가 형성되고, 여가·오락제도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가족과 학교 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기존의 사회화 과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회화 기제(mechanism)를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19]

장차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 정책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해방 직후 외교정책이 중요했고, 1950년대에는 농업정책, 1960년대에 경공업정책, 1970년대에 중공업정책, 1980년대에 재정경제정책, 1990년대 이후 정보화정책이 중요했지만, 21세기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자원 개발의 출발점은 바로 청소년정책이며, 정보사회·고령사회의 활력도 청소년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래 청소년 정책은 과거와 같이 청소년들을 기존의 가치관과 제도적 틀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관심과 취향에 따라 체험을 통하여 스스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 인권 보장을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수

19) 이하 청소년정책의 바람직한 내용은 배규한이 집필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36~38면을 인용함.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청소년 행정조직 선진화

21세기 정보사회, 네트워크사회, 고령사회, 글로벌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분야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미래 사회의 발전 동력은 바로 청소년들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증기기관이 산업사회를 이끌어 온 동력이었다만, 청소년은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발전 동력이 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청소년 행정은 당당한 독립부서로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내무부, 총리실,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밀려다니다가 총리실 산하 '위원회' 조직으로 그나마 독립부서가 되는가 싶더니, 불과 2년 만에 다시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폐합되고 말았다. 한국의 청소년정책이 시대에 부응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행정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선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청소년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본다면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청소년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방향성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청소년 정책을 대부분 청소년의 보호나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흔히들 생각하는 대로 청소년을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로 보고 이들을 잘 보호해야 하며, 행여 옳지 못한 길로 빠져드는 청소년들을 복지차원에서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대로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미성년자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보사회의 동력으로 보고 이들의 잠재력을 계발하고 생애역량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물론 일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나 복지정책이 중요하겠지만, 국가 청소년

정책의 큰 틀은 그들 일부가 아니라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가장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자면, “청소년청”과 같은 청소년정책 전담부서로 독립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청소년과 관련된 행정적 요구와 정책적 수요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정책영역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별 청소년정책 전담부처와 민간기구도 확대되고, 정책과 세부사업들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관련 행정이 독립부서로 되기 어렵다면, 현존하는 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앞서 살펴본 “촛불문화제”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청소년들은 ‘복지’보다는 ‘문화’ 코드에 훨씬 친근할 뿐 아니라, 문화영역이 미래사회 변화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잠재력 계발이나 역량강화도 주로 문화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미래 국가 성장의 동력은 소프트 파워 (Soft Power)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으로 분권화와 지역화가 더욱 진행될수록 청소년 계발과 육성이 곧 지역사회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청소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중요하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청소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청소년 행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 속에 여성이나 체육, 복지 등 분야와 섞여 들어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침이 일관성 있게 전달 또는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이며, 지역 간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긴밀히 연계되지 못했다. 행정조직 자체가 전국적인 라인 조직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앙의 청소년행정 담당부서가 독립기구로서 전국적인 라인조직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라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행정조직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미래사회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적 자원이므로, 인적자원

계발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 미래 첨단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흔히 첨단기술의 개발은 곧 인간의 창의력이나 상상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UN 등 국제기구에서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주요 부분으로 격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특히 사회문화 영역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의 백악관회의와 비슷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청소년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구상하게 되었다.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고(2003. 12), 200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해 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적으로 선정된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스스로 의제를 정하여 토론하고, 각 행정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연말에 그 결과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형식이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대통령께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가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청소년특별회의의 핵심은 대통령의 관심과 참여이다. 그러나 2004년 시범사업 시에만 대통령이 청소년 대표들을 직접 만났고, 이후 청소년특별회의가 4회 시행되었지만 모두 대통령 일정을 잡지 못하고, 총리나 장관이 최종 보고회의에 대신 참석하였다.

청소년특별회의는 하나의 사례이지만, 전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인재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진 각국은 이미 미래 세대들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교교육을 통한 학습역량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다. 철저히 교과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학교교육으로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

개발을 이루기 어렵다.

넷째, 생애주기에 따라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수립·집행해야 한다. 금년 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책연구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구상이다. 사회변동 추세나 선진국의 사례들을 보면 청소년정책연구를 더 활성화해야 할 시점인데, 이것은 오히려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국가 사회과학 연구소로서 "독일청소년연구소" (German Youth Institute)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여성·가족 관련 이슈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 연구 및 정책개발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에서도 "중국청소년연구중심" (China Youth and Children Research Center)에서 국가 차원의 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청소년 단체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 외에 프랑스,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전략을 통해 연령별로 상이한 요구에 따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보육 및 육아정책은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청소년정책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며, 아동정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세대에 대한 연구체계가 분산되어 있으면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통합적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과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한마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발생하게 될 광우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정책에 대해 누적된 불만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도 청소년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분석한대로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고 신뢰하는 매체로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쇠고기수입문제나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사회적 쟁점들에 관한 정보를 부모나 교사보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많이 얻었다.

조사결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와 포털 메인 뉴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매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덧 사이버 공간이 주류 언론과는 다른 대안적 공론의 장으로 청소년들에게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탈집중적이고 개방적이며 쌍방향적 특성을 지닌 인터넷의 영향으로 민주적 정치공론장이 사이버공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김종길 · 김문조, 2006). 또한 온라인 공간은 새로운 운동과 문화적 공간으로 청소년의 능동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정혜원, 2006).

연예인의 영향력은 흔히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가입돼 있고 즐겨 찾는 연예인 관련 인터넷 카페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 제3장 3절에서 분석한 인터넷 카페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이슈화 하자 별도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시판을 만들어, 회원들이 광우병이나 촛불집회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충격적인 다른 동영상과 함께 왜곡시켜 보여준 MBC PD 수첩은 촛불집회 촉발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뉴미디어 뿐 아니라 매스미디어인 방송의 의제설정 영향력도 여

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MBC PD 수첩은 광우병에 관한 위험성과 국민건강권 등에 관한 의제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고, 이러한 의제의 확산과정에는 인터넷 카페와 포털 사이트 등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 중에서는 신문과 같은 인쇄매체보다 TV 같은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2장 이론적 접근에서 살펴본 스멜서의 가치부가이론은 2008년 한국의 촛불집회 전개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촛불집회의 경우에도, 집합행동으로 발전되는 여섯 단계 중 어디서나 적절히 긴장이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담당자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각 단계의 현상들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촛불집회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스멜서의 가치부가이론에 따라 촛불집회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구조적 유인성이다. 촛불집회의 경우 흑인밀집 지역과 같은 실재구조는 아니지만, 사이버공간 내에 이러한 구조적 유인성이 형성되어 있었다. 청소년들은 학교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 안에 밀집되어 있으며, 수시로 다양한 형태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은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두 번째, 한국의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언제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구조적 긴장 상태에 있다. 자신의 취미활동이나 잠재력 계발에는 거의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생활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은 일상생활의 긴장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고, 판타지에 빠지는 해방공간이며, 친구들과 만나는 놀이공간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로부터 대등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화된 신념을 갖고 있다. 자신들의 의견에 도무지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부록 II(청소년면접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하나같이 쏟아내는 가장 큰 불만이었다.

넷째는 촉발요인인데,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환경오염과 더불어 이른 바 웰빙(well-being)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실제로 여러 차례 식품위생 관련 사건이 크게 보도되면서 식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는데, 때마침 MBC PD 수첩에서 광우병 사건을 과장·왜곡 보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상태(mass hysteria)에 빠지게 했던 것이다. 더욱이 연초부터 청소년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0교시 수업 부활, 전국 학력고사 실시, 대입제도 변화 등도 청소년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원인(遠因)이었다.

다섯째, 군중동원이다. 이번 촛불집회의 경우, 대부분 참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른바 르봉(Le Bon)이 말한 집합심성(collective mind)이[20] 형성되었다. 특히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 있는 '아고라' 토론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 집회 현장에는 커다란 '아고라 깃발'을 따라 움직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집회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실시간 중계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영상들을 다시 각종 카페에 퍼 옮김으로써 참여자를 계속 동원할 수 있었다.

여섯째, 사회통제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통제의 주된 통로였던 부모나 교사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와중에서 제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전통사회에서 작동하던 지역 어른이나 가문 등의 영향력은 오래 전에 소멸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사회적 메커니즘이나 정책적 대응도 거의 없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더불어 청소년정책은 더욱 후퇴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라는 청소년 정책 최고의 행정조직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되어 버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각종 여타 기관들도 구조조정 소문에 휩싸여 활력을 잃었다. 이른바 청소년 계 인사들은 불만을 표출하다

20) '집합심성'이란 군중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개별적 판단력이 소멸되고 하나의 거대한 집합적 정신상태가 형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함재봉(월간조선, 2008. 12)은 밈(meme) 개념을 사용하여 이번 촛불시위의 확산과정을 바이러스의 생성·확산·소멸 과정에 비유하기도 했다.

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2008년 촛불집회의 발화점은 어떻게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근거 없는 불안감에서 야기된 집단 히스테리 현상(mass hysteria)이었다. 그러나 당국의 대응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거의 무(無) 대응이었고, 중반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불만을 다독거리는 것과는 멀었다. 촛불집회를 단순히 반정부적·정치적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정치적 쟁점으로만 다루었고, 청소년 대신 사회 원로들이나 야당과의 대화에만 힘쓰거나 경찰력에 의한 시위 진화에 주력했던 것이다.

촛불집회는 6월 10일을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를 전후하여 각종 정치성향을 띤 이른 바 진보적인 단체들이 시위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단체들의 참여는 순수했던 청소년 집회의 성격을 변질시켰고, 시위가 정치화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은 거리시위 현장에서 거의 사라졌다. 결국 촛불집회는 그 성격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면서 이에 대응한 정치적 처방과 강력한 통제과정을 거쳐 잦아들었다.

결론적으로, 2008년 촛불집회는 끝났지만 그 불씨가 되었던 청소년들의 불만과 불안감, 기성세대와 소통부재 등의 문제는 그대로 잠복해 있다. 어떻게 보면, 그처럼 많은 청소년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한 계기가 "근거 없는 광우병 공포"였기 때문에 큰 사고 없이 그렇게 가라앉았다고 볼 수도 있다. 만약 앞으로 다른 어떤 계기에 의해 청소년들이 교육문제나 사회부조리 등 이유 있는 항변을 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008년 촛불집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다.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과거 프랑스나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교육문제 및 반전문제로 거리에 나서면서, 한국의 2002년 미군장갑차 사고나 2008년 촛불집회 이상으로 양국이 겪었던 엄청난 충격과 사회적 여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촛불집회 현장에서 면접한 대부분 청소년들은 교사나 연예인의 영향 또는 어떤 배후세력의 사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과 교육문제, 쇠고기수입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나 기성세대는 이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무조건 무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얻고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새로운 정치참여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살다시피 하는 행태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야단만 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실제 세계에서 억압받거나 보이지 않는 집단이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특정한 담론을 표현하고 존재감을 느끼며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Mitra, 2004). 즉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또래와 매개된 공동체(mediated cyber communities)를 형성하고, 사회적 쟁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참여하는 등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청소년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감상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보다 감정에 끌려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청소년들은 대운하 반대 이유로 단순히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대운하가 추진된 배경이나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환경적 효과 등 여러 정보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정보에 빠져 즉흥적이고 막연한 생각으로 그릇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청소년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많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청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소년을 성숙한 독립인

격체로 대하며, 사회적 쟁점에 관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과정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부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자녀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집회에 참여할 때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아직 때가 아니니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만 충실해라."는 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사회적 쟁점이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야 말로 부모-자녀 간, 세대 간 차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안한 세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단순히 부모나 교사의 가치관 및 행위양식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제도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적 연구기관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담 행정조직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청소년 정책 수립, 정책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청소년들의 잠재력 계발과 새로운 성장 동력화 등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시대적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에서 제안한 대로 청소년 행정조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청소년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성공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청소년들은 장차 국가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강력한 엔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청소년을 "미래세대일 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하면서 청소년정책을 보호·복지의 틀 속에 가두어 둔다면, 청소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 집단"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그들 속에 응어리진 불만들은 "광우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촉발요인에 의해 다시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을 장차 국가를 이끌어 갈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 키워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제4장에서 분석된 것처럼 정보사회, 고령화 시대에 왜 청소년이 중요한지, 청소년의 세대특성은 어떠한지, 사회화 과정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해 기성세대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을 '미성숙의 어린 사람'이 아니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하며, 장차 사회적 역할을 '미래 인간'이 아니라, 전환기의 고통과 수많은 사회적 제약 속에서 몸부림치는 '현재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체득하며 미래의 공기를 호흡하고, 미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뿐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접해 주어야 한다.

둘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및 정책담당자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한다. 이들이 청소년을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면서 청소년 정책의 핵심을 보호와 복지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한, 청소년정책이 바로 서기는 어렵다. 이들이 청소년의 특성과 시대적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사회참여, 잠재력 계발과 생애역량 강화 등으로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당장 이들의 인식과 시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청소년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정부 내 요직에서 청소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조정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제4장 4절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 옹색하게 들어가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실을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청소년정책이라도 어떤 성격의 부처에 속해 있느냐 또는 청소년에 대해 어떤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보건복지가족부에 속해 있는 한, 청소년정책은 보호 및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이 보호 및 복지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청소년정책은 오히려 대다수 청소년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청소년들을 디지털 시대의 첨병, 정보사회의 견인차, 글로벌 시대의 개척자, 고령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행정 부서부터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부조직을 바꾸어야 하는 분리·독립이 당장은 어렵다면, 최소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정책의 영역을 문화와 참여 등으로 확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아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일관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부처, 다양한 기관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들을 한 곳으로 통합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출생에서 자립까지 지원체제를 확고히 할 뿐 아니라, 영유아·아동·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육아정책개발센터」의 기능과 일부 아동정책을 추진해 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능, 「한국청소년상담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일부 연구기능 등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심으로 통합하여 「한국미래세대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안에 「미래세대 종합정보센터」, 「미래세대 역량개발연구센터」, 「미래세대 복지연구센터」, 「미래세대 정책평가센터」 등을 두면 더욱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본권 (2008.06.23). 영리한 시위군중 '스마트 몹' 눈길.『한겨레신문』.

권상희·김익현(2008). 온라인댓글인식과 댓글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언론정보학보』, 42호, 44~78.

김경년·김재영(2005).『오마이뉴스』독자의견 분석: '난장으로서의 공론장'가능성 탐색.『한국방송학보』, 19-3, 7~41.

김영지(2000).『청소년웹진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용철(2008). 정보화시대의 사회운동: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징.『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25권 1호, 5~42.

김은미·이준웅(2006). 읽기의 재발견: 인터넷토론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94.

김종길(2006). 시민참여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 가능성과 한계.『담론 201』, 9(3), 33~79.

김종길·김문조(2006).『디지털한국사회의 이해』. 서울: 집문당.

김호기(2008. 05. 14). 쌍방향 소통 '2.0 세대'.『한겨레신문』기고문.

민경배(2008. 05. 20). 휴대폰과 촛불의 386 주니어.『디지털타임스』시론.

송경재(2005). 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정치참여: 탄핵정국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담론 201』, 8(3), 123~160.

신청이(2008.06.20). 청소년주역들이 평가한 2008 촛불, '국민단합'과 '정치참여'『바이러스』.

윤성이 (2005). 정보화시대 온라인 미디어의 역할: 온라인 정치참여 제도화의 차원에서.『국제평화』, 제2권 2호, 3~36.

윤영철(2000). 온라인게시판 토론과 숙의 민주주의: 총선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한국방송학보』, 14-2호, 109~150.

이수범(2004). N세대 소비문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광고학연구』, 제15권 3호, 71~90.

이용교(1995).『한국청소년정책론』. 서울: 인간과 복지.

이창호(2008).『세대별 의식구조비교에 의한 미래사회변동 전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임희섭(2007).『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장근영 · 남주희(2006).『청소년정보화현황과 대응방안 II: 청소년의 온라인생활과 학업적응 현황』.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장우영(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액티비즘을 중심으로.『정보화정책』, 제13권 제3호, 49~68.

정재철(2006).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 33호, 253~285.

정혜원(2006). 청소년 사회참여의 과정과 형식에 관한 일 연구: 맥아담의 '인지적 해방과 운동문화'를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 제13권 5-1호, 155~186.

조대엽(2008). 2008년 촛불시위와 '제 4의 결사체'. 경향신문 주최 '촛불시위와 한국 민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문.

차현희(2007). 뉴미디어를 통한 가상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신세대들의 집단행동.『정보디자인학연구』, 제10집, 205~216.

최원기(2006). 세대격차와 세대갈등에 대한 성찰적 논의. 한국인간관계보, 11권 1호, 85-10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청소년들의 촛불문화제 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홍일표(2005). 인터넷과 시민운동. 이종구 · 조형제 · 정준영 외 지음,『정보사회의 이해』(287~309쪽). 서울: 미래 M & B.

Ford, T. V., & Gil, G. (2001). Radical Internet Use. In J. Downing (Ed.), *The Promise of Global Networks* (pp. 137~160). Queenstown, MD: The Aspen Institute.

Fraser, N. (1997).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C. Calhoun (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pp.109~142). The MIT Press.

Mitra, A. (2004). Voices of the marginalized on the Internet: Examples from a Website for women of South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54, 492~510.

Moore, R. K. (1999). Democracy and cyberspace. In B.N.Hague & B.D.Loader(Eds.),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pp. 39~62). New York: Routledge.

Russell, A. (2001). Chiapas and the new news: Internet and newspaper coverage of a broken cease-fire. *Journalism*, 2(2), 197~220.

부 록

Ⅰ. 카페 내용분석을 위한 코드 북(Code Book)

Ⅱ. 촛불집회 참가 청소년 인터뷰 녹취록

[부록 I] 카페 내용분석을 위한 코드 북(Code Book)

1. 인터넷 카페 명 1) 쭉빵클럽 2) 엽기 혹은 진실
2. 게시글 번호 * 미국산쇠고기수입과 관련 없는 글은 분석에서 제외
3. 게시 날짜 1) 2008년 5월 1일 - 31일 2) 2008년 6월 1일 - 30일
4. 게시글 작성자 : 닉네임 명
5. 게시글에 대한 댓글수 _____
6. 게시글에 대한 답글수 _____
7. 게시글에 대한 조회수 _____
8. 게시글의 성격
   1) 의견/주장
   2) 질문/대답
   3) 욕설/비난(근거 없는 비난이나 지나친 욕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4) 건의/권유
   5) 퍼온 글
   6) 단순정보전달
   7) 기타
9. 게시글 주제
   1) 광우병 위험(광우병전염경로, 광우병위험음식, 막연한 불안감, 학교급식우려 등)
   2) 촛불시위 정보 공유 (집회일정공지, 참여후기, 현장소식, 촛불시위의 방향성 등)
   3) 촛불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 비판(경찰의 강경진압과 대응, 집회참가자 연행 등)
   4)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학교자율화문제,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문제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다룬 내용)
   5) 보수언론(조중동)과 한나라당 비판, 진보언론(한겨레, PD수첩 등)과 단체 옹호

6) 오프라인 및 온라인운동(기업불매운동 및 항의댓글 운동, 광우병반대 서명 등)
7)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및 수입과정
8) 불법 및 과격시위에 대한 우려(촛불시위가 폭력성을 띠거나 과격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
9) 기타 _____

10. (게시글이 광우병 위험에 관련된 경우만) 글의 출처
1) 없다 (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2) 있다____구체적으로 서술함_____

11. 게시글 논조(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1) 긍정적 (미국산 쇠고기가 먹기에 안전하다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촛불시위를 비판하는 내용)
2) 중립 (판단할 수 없는 경우)
3) 부정적(광우병위험, 전염경로 등 국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강조, 촛불집회에 대한 옹호의 글)

[부록 III] 촛불집회 참가 청소년 인터뷰 녹취록

1. 인터뷰 문항

-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참여 동기, 참여한 후의 느낌, 향후 지속적 참여 여부 등 질문
- 누구와 함께 오게 됐나?
- 쇠고기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또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해서 질문함.
- 예전에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회였는지 물어봄.
-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부는 안하고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특히 청소년들의 집회참석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본인 스스로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는가?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건은?

2. 인터뷰 녹취록

<사례 3>
일 시: 2008년 5월 9일(금) 저녁
장 소: 청계천
대상자: 고1 남학생 1명

Q :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시위에는 처음 참여하였다. 문자로도 많이 접했고, 여러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다. 인터넷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고, 단순히 인터넷을 통한 의견표출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 시험이 끝나자마자 참여하였다. 실제로 집회에 참여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동조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 촛불 집회가 시위라기보다는 문화제에 가깝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른의 시선에서 바라본 것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주된 이야기 소재가 쇠고기 문제이다.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느끼고 나온 것이고, 놀이의 수단으로 이 문화제를 바라보지 않는다. 나와 의견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계속 의견을 표출할 것이다.

Q : 누구와 함께 오게 되었나?
- 친구들

Q : 쇠고기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 관련 웹사이트나 카페에는 가입하거나 글을 남긴 적이 없다.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실제로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예인의 의견 표출에 대해서는 연예인도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연예인의 의견이 청소년 집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심각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FTA는 큰 거부감이 없다. 왜냐하면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직접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병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나와서 의견을 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

- 광우병이 가장 걱정이다.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광우병이 없다는 확실 한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다.

Q : 예전에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나?

- 없다.

Q : 청소년의 집회 참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혹시나 모를 압력이나 피해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지만, 경찰이 많이 나오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모이게 된다면 걱정 안할 것 같다.

Q : 본인 스스로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는가?

- 거의 불신이라고 봐야 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지 못한다. 이미 매우 위험하다는 증거 자료도 나와 있기 때문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Q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건은?

- 월드컵 때 같이 응원한 것이 기억난다. 하지만 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였는데 지금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라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사례 5>

일 시: 2008년 5월 9일(금) 저녁

장 소: 청계천

대상자: 고2 남학생 2명

Q :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이 문제는 후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발병이 금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잠복기간인 10년 후에 갑자기 죽는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용산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임원으로서 참가하게 되었

다. 앞으로도 계속 참가할 의사가 있다. 같은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올 생각이다.

Q : 누구와 함께 오게 되었나?

- 친구들

Q : 쇠고기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 쇠고기 개방에 대해서는 광우병에 대한 논문과 글을 봤고, 인터넷에서 그림 형식의 콘텐츠를 접하였다.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을 반대한다. 물론 병에 걸릴 확률은 낮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인권 보호와 모순이다. 인터넷과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카페 등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예인의 의견표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광우병은 단백질 변형이 생긴 것이고 방사능에도 절대 죽지 않고, 몇 천도를 가해도 죽지 않는다는 병이라는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을 통해 접했다. 뉴스에도 나온 것이므로 이 이야기를 믿는다. 5월 17일 휴교와 관련한 문자를 받은 적은 있지만 믿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 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정치에 대해 몰랐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인터넷과 뉴스, 청문회, 100분 토론을 보면서 쇠고기 수입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운하, 학교 자율화 프로젝트 등은 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안 듣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언론의 말도 안 들으며 성급하게 말을 뱉으면 그것은 공산당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Q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

- 급식에 대해서 불안한 것은 있다. 학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하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이 된다. 라면 스프, 햄버거, 자장면 등에도 쇠고기가 들어

간다. 일단 한 번 퍼지게 되면 국민의 건강이 위협 받는다.

Q : 예전에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나?

- 학교 자율화 반대 집회

Q : 청소년의 집회 참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어차피 2~3년 지나면 똑같이 주장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단지 2~3년 어리다고 우리의 주장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부모님께서는 이해를 해주는 편이다. 광우병 문제는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밀어주는 편이다. 학생들이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다들 누군가의 영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어서 온 것이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들도 사실과 거짓을 걸러낼 수 있다고 본다.

Q : 본인 스스로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는가?

- 청소년 세대. 신세대 정보화 세대, 입시지옥의 세대.

Q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건은?

- IMF, 지금 이 사건.

<사례 6>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저녁

장 소: 시청 앞

대상자: 중학교 3학년 여학생(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음)

Q :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촛불 문화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었다. 또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집회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과연 맞는지 알고 싶었다. 그보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실행하려는 모든 정책에 반대하기 때

문에 친구들과 함께 왔다. 자유발언대서 발언하는 분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간절해 충격을 받았다. 또 오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일정이 맞지 않는다.

Q : 누구와 함께 오게 되었나?

- 같은 중학교 학생들 24명과 함께 왔다.

Q : 쇠고기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는가?

- 신문을 통해 얻는다. 그러나 신문은 충분한 정보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참석에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다. 집에 TV가 없어 방송은 못 본다.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를 구독하고 있다.

Q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말도 안 된다. 광우병을 제쳐두고라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위해서라도 이는 절대 안 될 말이다. 이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살 길이 없고,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Q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

-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면 청소년들에게는 광우병 발병에 대한 위험이 커질 뿐 아니라 서구문화에 물들 것이다.

Q : 예전에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나?

-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촛불집회가 열렸을 때 가족과 함께 참여했다.

Q : 청소년의 집회 참여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의 삶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불안, 희망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Q : 본인 스스로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는가?

- 신문에서는 2.0세대라고 하던데, 난 솔직히 세대를 나누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Q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건은?

- 월드컵

<사례 8>
일 시: 2008년 5월 14일(수) 저녁
장 소: 시청 앞
대상자: 고3 여학생

Q : 문화제에는 처음 참여하시는 거세요?
- 아니요, 9일에도 왔었어요.
Q : 문화제에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 제가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제가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이 살았고,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교과서에서 배운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와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자원봉사하고 같이 나눠드리면서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이거 끝나면 사람들 진짜 청소 열심히 깨끗이 하시거든요. 조선일보에서 저번에 촛농 가지고 시비가 나서 촛농까지 긁어 가시더라구요. 그런 것 보면서 사회책에서 본 민주주의 같은 게 아직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구요. 이번 집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Q : 여기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 처음에는 정치에 관심 없이 살았거든요. 점점 뉴스 이런 거를, 고3이 되면 논술 준비 하느라고 뉴스,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점점 일이 너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막 걱정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우병 얘기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루머도 많이 돌잖아요. 공포식으로 많이 돌잖아요. 아,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이구나. 이게 진짜 고3이라고 공부하느라고 무시할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와 보니까, 마침 그 날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날이었어요.
Q : 아, 근데 고3이니까 조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친구가 여기 나오는 거 아세요?
- 저번에는 제가 허락을 안 받고 그냥 갔는데, 원래 늦게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께서 잘 모르셨나 봐요. 다음 날 "엄마 나 시위 같은데 나가도 되

나” 이랬더니 “나가도 되지, 엄마가 언제 말리드나, 근데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구요. 고3은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또 막상 와 보면은 지금 유난히 학생들이 많잖아요. 어른들은 사회적 책임이 많으시니까...지금 광우병 이런 거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 막 내려오거든요. 학생들 내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막으시면 막으실수록 지금이 ‘80년대가 아닌 이상, 막으셔도 인터넷으로 많이 퍼지고 이러니까 공부도 공분데 대학 가거나 회사 나중에 들어가서, 그 때 좋은 데 들어가서 죽으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Q : 자원봉사 할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각성이 느껴져서 같이 도와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 글쎄, 그렇게 거창한 생각은 없어요. 그냥 오면요 정책연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끼는 거예요.

Q : 근데 정부의 미국산 수입 결정에 대해서는 학생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 저는 진짜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1주일 만에 급하게 된 것이라서, 내용도 잘 몰랐는데 PD수첩에서 심각성을 많이 느꼈어요. 검역주권 포기한 게, 지금 오역이다 어쩐다 해서 얘기가 많은데, 하도 말 바꾸기가 많아서 당장 믿기는 의심스럽구요. 당장, 지금 조선일보 특보에서 120개월짜리 소고기가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기절할 뻔 했어요.

Q : 그것도 있었어요? 그건 못 봤어요.

- 30개월 이상도 들어오기 때문에 120개월 이상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10년이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찾아봤는데 어느 정부 관계자께서 소도 생명인데 10년이 안 되서 죽이는 건 너무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했어요. 국민도 사람인데 평균수명까지 살 수 있게 해주셔야지 쇠고기 먹고 일찍 죽을 순 없잖아요.

Q : 여러 가지 매체에서 친구가 쇠고기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매체는 뭐예요?

- 일단 인터넷.

Q : 그럼 2번째로는
- MBC, 마봉춘(MBC의 별명, 유래는 무한도전에서 시작되었음) ^^
Q : 휴대폰은 어때요?
-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Q : 답문 혹시 보낸 적 있었어요?
- 보내진 않았어요.
Q : 무슨 내용으로 문자가 와요?
- 대표적으로, '소중한 백의민족 청계광장으로 집결' 이럴 때 그 앞의 소에 쌍 따옴표를 해두셨어요. 강조를 하신거죠.
Q :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참여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 마침 그 날이 집회 간 날이었어요.
Q : 그러면 친구가 여기 나오기 까지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 대통령님. 얼굴도 뵌 적 없는 대통령님께서 19년 동안 정치에 없던 저를 2개월 만에 정치판에 끌어들이사 시위장에 내보내셨어요. 놀이 문화가 없었던게 아니구, 내보내시길래 왔어요.
Q : 그럼 같이 온 친구들은 의견을 주고받다가 의견이 동일해서 오게 된 거예요?
- 네. 저희 나이대가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거 안 하잖아요. 시켜도.
Q : 인터넷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게 되세요?
- 아무래도 평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에 몰아 하죠. 한 5~6시간? 주말에.
Q : 쇠고기 관련 정보는 인터넷 중에서도 어디에서 많이 얻게 되나요?
-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중에 다음에 '연예인 이제 그들을 말한다.' 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원래 연예인을 비판하는 건데, 카페 회원수가 100만 명 쯤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비평, 생활 정보, 추천 도서 이렇게 다목적이 된 카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도 여론이 시끄럽고 하니까 거기 카페에도 광우병이나 대통령 정치에 관련해 쓰는 게시판이 2개 정도 생겼어요. 거기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올라오고, 저는

그걸 보고 시위 일정 같은 것도 보고, 사람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신문 기사 이런 거를 거기서 봐요.

Q : 혹시 그 곳 말고 다른 곳에서 얻는 정보는 없어요?

- '엽기 혹은 진실' 그 카페에도 광우병 소 수입 금지 게시판이 따로 있구요. '정책연대'나 '미친소.net' 이요.

Q : 친구가 아는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보가 있을까요? 이걸 보고 나서 나는 여기 꼭 참여해야겠다고 느꼈다와 같은 정보가 있어요?

- PD수첩에서 대통령께서 미국의 기업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국민에게 발표하기도 전에 먼저 수입되기로 한 걸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가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데 그 옆에 화면이 오버랩 되듯이 겹치면서 시민들이 항의하는 장면이 겹치더라구요. 미국사람들은 그걸 보며 흐뭇해하면서 웃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위를 하는 장면이 되게 무섭더라구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싶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안전을 미국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제가 미국 시민이 아닌데.

Q : 근데 쇠고기 관련 댓글을 달아본 적도 있어요?

- 많이 달았죠. 여러분 우리 식으면 안돼요. 청계광장으로 오세요. 시청으로 오세요.

Q : 예쁘게 달았다~. 좀 심하게 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욕도 좀 하시고.

- 에 뭐, 욕은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고. 홍보하는 것도 바쁜데...

Q : 사람들이 많이 단 댓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 이렇게 시끄러운데 왜 높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깔아뭉개려고 하실까? 국민의 여론이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들으라고 뽑은 대표들이잖아요. 근데 왜 무시하고 자기들 의견대로 나가실까. 그런 생각

Q : 혹시 블로그나 싸이월드 하세요?

- 고3이잖아요. 닫았어요.

Q : 그러면 쇠고기 외에도 의료보험 민영화...
- 민영화! 솔직히 저는 민영화를 먼저 알아서, 민영화가 더 무서워요.
Q : 그렇구나. 쇠고기 외에 공공이슈에도 관심이 있어요?
- 네
Q : 혹시 그와 관련된 이슈가 생긴다면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요?
- 이것도 7시부터 9시까지 다음에는 민영화도 관련된 것이 아니었어요? 다 연관이 되고.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긴데, “야 우리 이거 쇠고기 집회 끝나면 공부하는건가?” 이러면 “아니지, 의료보험 민영화 가고 수도요금 민영화 가고, 그리고 도시가스 민영화 가는 거고, 가는 거지.”
Q : 근데 아주 조금 입장이 특수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수할 만큼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나 봐요.
- 네, 저도 그렇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딱히 사회적으로 잃을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겁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무서워할 것 없이 저희 눈앞에 보이는 진실만을 믿고 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잃을 건 없는데 지킬 건 좀 많은 거죠. 가족이랑 제 친구랑 제가 앞으로 가면서 만나게 될 직장 상사라던가 제 미래의 남편, 아이까지.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라고요. 제 동생이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남동생이거든요. 군대를 가서 급식으로 막 그런 거를 먹게 되고...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군인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군인이 편지의 중간에 “혹시 사회에 조류독감 돌아? 요새 끼니마다 닭고기가 나와.” 이러는데 제가 리플에 “이제 쇠고기도 나올텐데...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제 동생이 이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수도 민영화 이런 것도 민영화를 하면 가격이 최소한 2배는 오르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아서 그거 물 값 내고, 수도세 내고, 전기세 내고 이러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작년에 아프셨는데, 만약에 그 때 이미 민영화가 된 상태라서 병원도 못가고 집에서 끙끙 앓으시면 어떻게 했을까 하니까 무섭더라구요. 사람 일은 장담을 못 하잖아요.

Q : 평소에 학교 동아리나 종교활동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편이예요?

- 아니요. 딱히

Q : 본인의 정치 성향이 특별히 진보, 보수, 중도 중에 한 군데에 속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 아직, 2개월 동안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래도 정치 맛을 보면 다들 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역사 이런 쪽으로 좋아하는데, 역사 이런 쪽도 보면 처음에는 다 그랬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처음에는 올바른 길로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끝에 가면은 부패도 일어나고 부정도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Q : 예전에 이와 비슷한 집회는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저는 아니고, 아까 제 친구는 그 때 미국에 죽었던 친구들 집회는 가본 적 있다고 했어요.

Q : 솔직히, 많은 어른 분들이 청소년들에 대해 부정적인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데, 청소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직은 저희가 여기에 참여할 나이라던가 객관적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황당했던 거는 연예인이 선동해서 나온다? 그 정도? 근데,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10년 쫓아 다녔어요. 10년 쫓아 다녔는데 그 연예인이 만약에 팬 여러분 저를 위해서 집회에 나가주세요. 그럼 저는 개무시 할거거든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셔야죠. 이건 격하게 농담 식으로 말한 거고. 연예인이 선동한다고 굳이 나갈 정도의 머리라면 그건 좀 멍청한 게 아닐까요. 바로 제 앞에서 연예인 촛불시위 한다고 해도 저는 관심 없어요. 연예인이 우선인가요? 제가 살아야죠.

Q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10대는 어떤 세대인 것 같아요?

- 10대는 변화를 몸으로 받아들이고 흘러감에 몸을 맡기는 세대고, 20대는 변화에 민감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있을 곳을 찾고, 30대부터 이제는 좀 변화가 무서운 시기.

Q : 어떻게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금방 하지?
- 어디서 읽은 것에서 대충 생각 덧붙인 거예요. 공감이 갔거든요.
Q :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나 경험 중에서 친구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5.18.
Q : 5.18은 친구가 태어났을 때가 아니죠. 혹시 친구가 태어나고 나서는요?
-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대통령 탄핵? 전 참여정부 때 대통령 탄핵 정도? 근데 탄핵 이유가 굉장히 추상적이었거든요.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다는...그거 지금 대통령한테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사례 18>
일 시: 2008년 5월 21일(수) 저녁
장 소: 청계천
대상자: 고3 남학생

Q :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뉴스에서는 청소년이 많다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 일반인들 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 솔직히 집회 분위기를 경험하고자 왔다.
Q : 누구와 함께 오게 되었나?
- 혼자 왔다(혼자 문화제에 참석한 이 학생은 집회에 참석하면서 노트에 꼼꼼히 집회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
Q : 쇠고기관련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는가?
- TV를 볼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쇠고기 관련 정보는 포털 사이트 뉴스 속보에서 많이 얻는다. 좀 더 알고자 할 때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다. 다음에 있는 안티이명박카페에 많이 간다. 하루 약 30분 인터넷을 이용한다.
Q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저는 아직은 학생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한다. 장기적인 관

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감정적인 대응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이 자유발언대서 너무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같은 세대로서 내용에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Q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

- 청소년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 같아 반대한다.

Q : 예전에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나?

- 00(지방도시)에서만 자라서 이렇게 큰 규모의 집회에 참석해 본 적은 없다. 저번에 17일 날 나오고 두 번째다. 제가 원래 00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모임은 처음이다. 00에 있다가 서울로 유학 와 현재 예체능계 학교에 다닌다.

Q : 본인 스스로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는가?

- 학생세대라고 생각한다. 신분도 학생이니까.

Q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 경험이나 사건은?

- 딱히 떠오르는 역사적 사건은 없다. 최근 촛불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6월 10일을 고비로 시위참여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7월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의 모습을 시위대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7월 4일(금) 저녁 8시경부터 11시까지 시위현장을 찾아다녔으나, 청소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날은 다음과 같은 질문 틀을 가지고 겨우 4명을 인터뷰했다.)

1. 촛불집회 참여 동기

- 어디서 왔는가? 몇 학년(또는 몇 살)인가?
  오늘 누구와 함께 왔는가?
- 어떻게 촛불집회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어떤 동기/계기로)
-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 선생님, 부모님, 자신...)

- 촛불집회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는가?(인터넷/TV/신문, 친구, 선생님, 부모님...)
- 촛불집회에 참여한 후의 느낌은?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이러한 생각의 배경을 물어 봄)
-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하여)
- 오로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만을 위해 나왔는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3. 사회적 관심

- 평소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
- 평소 공공문제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알려고 노력하는 편인가?
-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나? 있다면 어떤 집회였던가?
-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적 경험이나 사건은 무엇인가?

4. 자신의 성향과 생각

- 평소에 친구관계나 동아리활동, 종교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인가?
- 청소년들이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촛불시위의 끝은? 어떻게 해야(되어야) 촛불시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나?

- 이명박 정부나 한국사회에 대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사례 21>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저녁
장 소: 시청광장
대 상: 인천에서 온 고3 여학생. 친구와 함께

Q : 어디서 왔어요?
- 인천이요.
Q : 몇 학년이죠?
- 고3이요
Q : 친구 둘이 왔어요?
- 네. 둘이 왔어요.
Q : 어떻게 나올 생각을 했어요?
- 가봐야겠다. 옛날부터 생각은 했는데, 고3이라 시간도 없고 오늘 오려고 왔어요.
Q : 누구 말을 듣고 나오게 됐어요?
- 친구들이랑.
Q :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 해봤어요?
- 그냥~
Q : 주로 촛불집회 정보는 어떻게 얻었어요?
- 인터넷이요.
Q : 와보니까 어때요?
- 슬퍼요
Q : 왜? 재미있지 않아요?
- 그냥...
Q : 정부의 쇠고기수입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 (울음을 터트림)

Q : 쇠고기 수입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무서워질 것 같아요.
Q : 청소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네.
Q : 광우병 걸릴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 네
Q : 본인도 걸릴 것 같아요?
- 네
Q :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 들어오면 괜찮다고 하던데?
- 그걸 어떻게 믿어요.
Q : 그럼 여기나온 건 오로지 쇠고기수입반대를 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 저희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Q : 평소에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 별로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많아진 것 같아요.
Q : 전에도 집회에 나와 본 적 있어요?
- 오늘 처음 나왔어요.
Q : 제일 기억에 남는 큰 사건이 있다면?
- 지금 광우병파동이 가장 큰 것 같아요.
Q : 평소에 서클활동 많이 해요?
- 할 시간도 없어요.
Q : 종교도 없나요?
- 네
Q : 평소에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 그래도 잠깐 갔다 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Q : 집회에 안 나오는 친구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 안 나와도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깐...

Q : 다른 친구들은 집회에 많이 나와 봤나요?
- 네
Q : 어떻게 해야 촛불집회가 끝날 것 같아요?
- (무응답)
Q : 이명박 정부나 한국사회에 대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 국민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억지 부리는 것도 아니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거니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Q : 평소 학교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청소년들의 말을 잘 안 들어주나요?
- 네.
Q : 학생들이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네
Q : 집회에 또 나오고 싶어요?
- 네
Q : 다른 친구들에게 나오자고 권유할 것 같아요?
- 나가보라고 할 것 같아요.
Q : 오늘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은 뭐예요?
- 답답해요.
Q : 답답해요? 누가? 여기 모인 어른들이?
- 아니요
Q : 부모님께 늦는다고 얘기했어요?
- 아니요

[연구자 면접소감] 정부의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친구들 사이에서 떠도는 정보를 대부분 믿고 있는 듯하다.

<사례 22>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저녁

장 소: 청계천

대 상: 중곡동에서 온 고2 여학생. 사촌여동생(고1)과 함께

Q : 어디서 왔어요?

- 중곡동이요

Q : 지금 몇 학년 이예요?

- 고2, 고1

Q : 어떻게 여기나오게 됐어요?

- 놀러 나왔어요.

Q : 촛불집회에 대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 인터넷, 신문, TV 다 봐요

Q : 촛불집회에 대해 누구와 많이 얘기해요?

- 주로 친구들과 얘기 많이 해요.

Q : 연예인들 얘기도 많이 들어요?

- 연예인들 의견에 영향 받지는 않아요.

Q : 와보니깐 느낌이 어때요?

- 놀고 있는 것 같아요.

Q : 쇠고기 수입은 신경 안 쓰여요?

- 신경 쓰긴 써요

Q : 미국 쇠고기 수입되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Q :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네

Q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 별로 안 좋아요

Q : 두 학생은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나온 건 아니네요?
- 그것도 있고요, 그냥 한번 나와 본거예요. 어제 처음 나와 봤어요.
Q : 5월부터 했는데 왜 안 나와 봤어요?
- 그냥요
Q : 평소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나요?
- 별로 없어요.
Q : 이런 집회는 처음인가요?
- 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사회적 사건?
- 2002년 발생한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요
Q : 평소 서클활동을 많이 하나요?
- 아니요
Q : 종교는?
- 기독교요
Q : 지금 쇠고기 수입은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 네
Q : 집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지금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아요.
Q : 위험하진 않은데 공부해야할 시간에 나와 있잖아요?
- 학교에서 해요..(웃음)
Q : 오늘 머리 식히러 나온 거네요?
- 네 (웃음)
Q : 앞으로 또 나올 생각이 있어요?
- 네
Q : 나와 보니깐 좋은 것 같아요?
- (고개를 끄덕임.)

Q : 내 뜻을 정부에 전한다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분위기가 재미있어서 좋아요?

- 둘 다요

Q : 촛불시위가 어떻게 하면 끝날까요?

- 쇠고기 수입 안하면요.

Q :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 네

Q :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쇠고기 수입이 안 되길 바라나요?

- (무응답)

Q : 청소년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나요?

- 갑자기 하니깐 못하겠어요.

Q : 평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 갖는다고 생각해요?

- 가끔요.

Q : 인격적으로 어른대접은 안 해줘요?

- 그렇죠. 어리다고..

Q : 실제론 어떻게 생각해요?

- 다 컸죠~! (웃음)

Q : 그 동안 친구들이 얼마나 왔다갔나요?

-우리 반 애들 반 정도요.

Q : 갔다 온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 그냥 시위 아닌 것 같고, 놀고 있는 것 같다고.

Q : 나가보라고 하던가요?

- 재미없다고, 어른들끼리 논다고.

Q : 또 나올 생각이 있나요?

- 네

Q : 청소년들이 사회에 대해 가장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면접소감] 정부의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갖고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 없이 상황이 궁금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례 23>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저녁
장 소: 청계천
대 상: 서울 중구에 사는 여고생

Q : 오늘 혼자 나왔어요?
- 지금...학원에 갔다 오는 길인데...
Q : 집회에 나온 건 아니고?
- 길가다 잠깐 한 적은 있어요.
Q : 이 주변에 사나요?
- 네 00여고 다녀요.
Q : 그 전에 집회에 많이 참석해 봤어요?
- 한번요.
Q : 쇠고기 수입이 걱정이 돼서 나왔어요?
- 그런 이유도 있고, 그냥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친구랑 길가다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봤어요. 대통령이 좀 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Q :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었나요?
- 인터넷 뉴스나 전단지요.
Q :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이런 이야기 해봤나요?
- 엄마랑요. 엄마도 쇠고기 수입은 찬성하지만 정부가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진행하려고 하니깐 엄마도 그게 화가 나신다고...
Q : 쇠고기 자체의 위험성 보다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화가난건가요?
- 네, 어찌되었든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위험성

을 알리지 않고 한 거잖아요.

Q : 실제로 쇠고기가 수입돼도 위험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 30개월 이상 된 소 수입안하고, 위험부분 다 떼어내고 하면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들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선 좀 그래요. 대통령이니깐.

Q : 평소에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 그런 건 아닌데, 포털 사이트 헤드라인에 뜬 거 중요한 것 같은 건 봐요.

Q : 전에 다른 집회에 나와 본 적 있나요?

- FTA 때요.

Q :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 이번 쇠고기 파동이 기억에 남아요.

Q : 종교는?

- 천주교요

Q :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독교 대통령이다. 불교에서 반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그냥 그 사람들도, 사람들 위험하니까 걱정돼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Q :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 어른들이 생각하는 건요 애들이 잘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애들도 관심 많은 애들이 진짜 걱정 많이 하고 그래서 나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통제해서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Q : 지금 학생생각은 고등학생도 알만큼 알고 자기 의견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청소년들의 생각을 잘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나요?

- 어른들은 애들이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다른 사람 따라서 참여한다고 생각해요.

Q : 쇠고기 자체의 문제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 위험요소는 남아있지만 먼저 차단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위험요소를...

Q : 촛불집회가 어떻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 모르겠어요.
Q : 정치인이나 기성세대 등 어른들에게 바라는 것은?
- 대통령이 너무 단시간 내에 개혁을 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면접소감]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기존 FTA집회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환경적 요소(집회장소가 집주변), 부모님과의 대화 등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큰 것 같다.

<사례 24>
일 시: 2008년 7월 4일(금) 저녁
장 소: 세종로
대 상: 광화문 근처에 사는 고2 여학생

Q : 전에 집회 참여해본 적 있어요?
- 참석해보진 않고 보긴 많이 봤어요.
Q : 다른 친구들은 촛불 집회 이야기 많이 해요?
- 잘 안 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구로 쪽이라 여기랑 멀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이 근처에 사니깐 많이 보지만...
Q : 지금 몇 학년이죠?
- 고2요
Q : 친구들이랑 광우병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 처음엔 많이 했죠. 지금은 협상, 재협상 하고 있으니까 이제 촛불 시위하는 것 짜증난다고들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 갈 때 차 막히고, 불편해서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Q : 지금은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지금은...네

Q : 평소에 이런 집회 나와 본 적 있어요?

- 아니요..처음에 부풀어진 게 많잖아요. 광우병 같은 것.

Q : 종교는?

- 기독교요.

Q :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 저도 처음에는 진짜 완전 심각한건 줄 알고, 엄마한테 엄청 심각한 거라고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다 오버하는 거라고 믿지 말라고 우리나라사람들이 그런 것이 심하다고...그때는 엄마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집회 나온)사람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Q :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 9.11테러요

Q :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집회 나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맞는 것 같아요.

Q : 이제 촛불시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 네

Q : 평소, 정치인들이나 어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물가안정이요. 기름 값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버스 값도 오르고, 대학가면 등록금도 걱정되고요.

[연구자 면접소감]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은 아니었다. 현재 촛불집회 자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아 보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보고(수시과제) 08-R19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 간 소통방식에 관한 연구
-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71-0(93330)